

# 速記界

第八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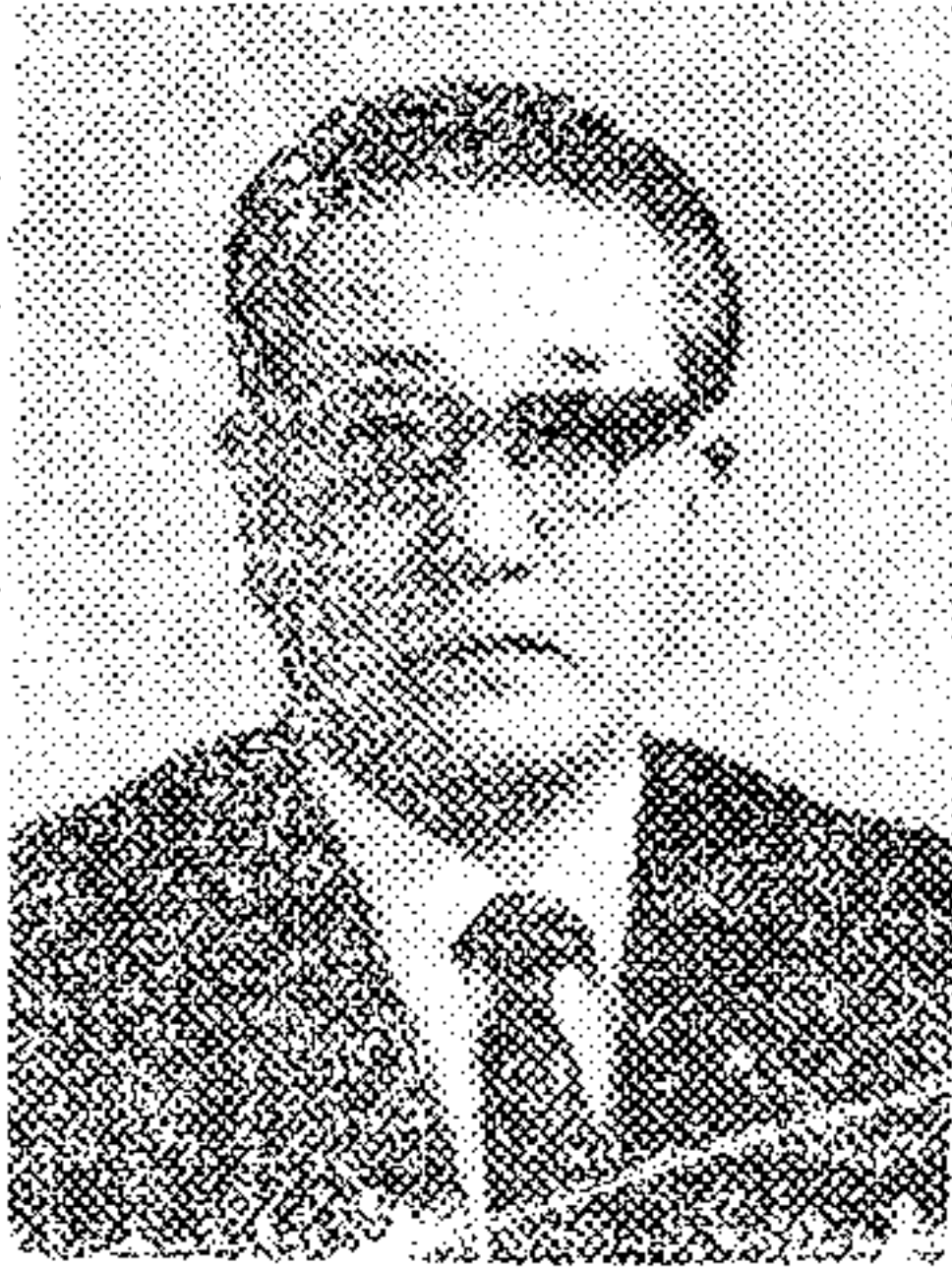
會協記速大韓法人團社

# 目 次

	<激勵辭> 使命感.....國會事務總長 鮮于宗源.....	2
	◇ 나의 提案.....國會速記課長 崔興俊.....	3
	◇ 發言과 記錄의 限界 .....	6
	速記錄의 迅速發刊方案.....	8
	速記와 錄音.....	11
	□ 試 論 □	
	文章으로 본 速記錄.....	13
	● 國監落穂 .....	17
	● 選良따라 2千里 .....	23
	● 地下 300 .....	28
隨 筆	閑談客談.....	31
	最高會議速記士.....	33
	郵票散考.....	35
	미스킴의 辯 .....	37
	□ 資格檢定規定 .....	38

## 使 命 感

國會事務總長 鮮于 宗 源



速記界 겨울號를 發刊함에, 卷頭에 붙여 여러 速記人들에게 激勵를 하고자 한다.

國民의 集約된 民意를 代辯, 國政에 反映하는 國會議員의 院內發言을 손끝으로 담아 巨大한 歷史의 한 페이지를 엮어 나가는 速記士들은 民主 憲政史의 證人으로서 莫重한 任務가 賦與되어 있고 따라서 國民의 눈이

總 集結된 民主憲政의 本山인 議事堂 한가운데에서 오늘도 숨은 役軍으로서 歷史를 點綴해 나가는데 勞苦를 아끼지 않고 있는 速記士들을 致賀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나라의 歷史는 記錄으로 나타나고 그 記錄은 머언 後世에 까지 傳承되어 數千年이 지나서도 時代에 발맞추어 걸어 왔다는 儼然한 證據에 對한 無限한 可能性을 提示해 준다. 그 可能性을 우리는 能率과 스피드를 爲主로 하는 速記士들의 力量에 依支하여 이들이 嚴正한 目擊者로서 歷史를 지켜보는 가운데 議政을 遂行해 나가고 있다.

國會法 第 108條 2項에도 「會議錄에는 速記法에 依하여 모든 議事를 記載하여야 한다」라고 明示되어 있는만큼 速記士의 任務와 使命은 莫重한 것이다. 이 點 十分 勘案하여 速記士들은 스스로의 責任을 痛感하여 보람과 矜持를 가지고 眞摯하고도 誠實한 業務를 遂行해서 國家社會에 貢獻하기를 懇切히 바라는 바이다.

무릇 悠久한 歷史와 傳統은 記錄이라는 燦爛한 文化와 더불어 더 없이 所重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後世에까지 길이 傳할 義務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速記士 여러분들이 國政에 參與하고 있는 그 比重을 생각해서 올바른 議政史를 鼎立하는데 最大의 努力을 傾注해 줄 것을 나는 期待하고 있다.

速記人 여러분의 健闘를 빈다.



# 나 의 提 案

— 餘暇를 活用할 수 있는  
生活人이 되자 —

崔 興 俊

(國會 速記課長)

20代 青年의 言動을 보면 그 青年이 자라난 家庭環境을 알 수 있고 40代가 되면 그 얼굴에 지나간 社會經歷이 새겨져 그 사람의 過去를 곧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環境에 따라서 용모 뿐만 아니라 性格 思考方式 一人格—까지도 判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社會環境이 그 社會에서 生活하는 모든 사람 一國民—의 性格이나 國民性을 造成하는데 큰 影響을 미친다는 것은 再論할 必要조차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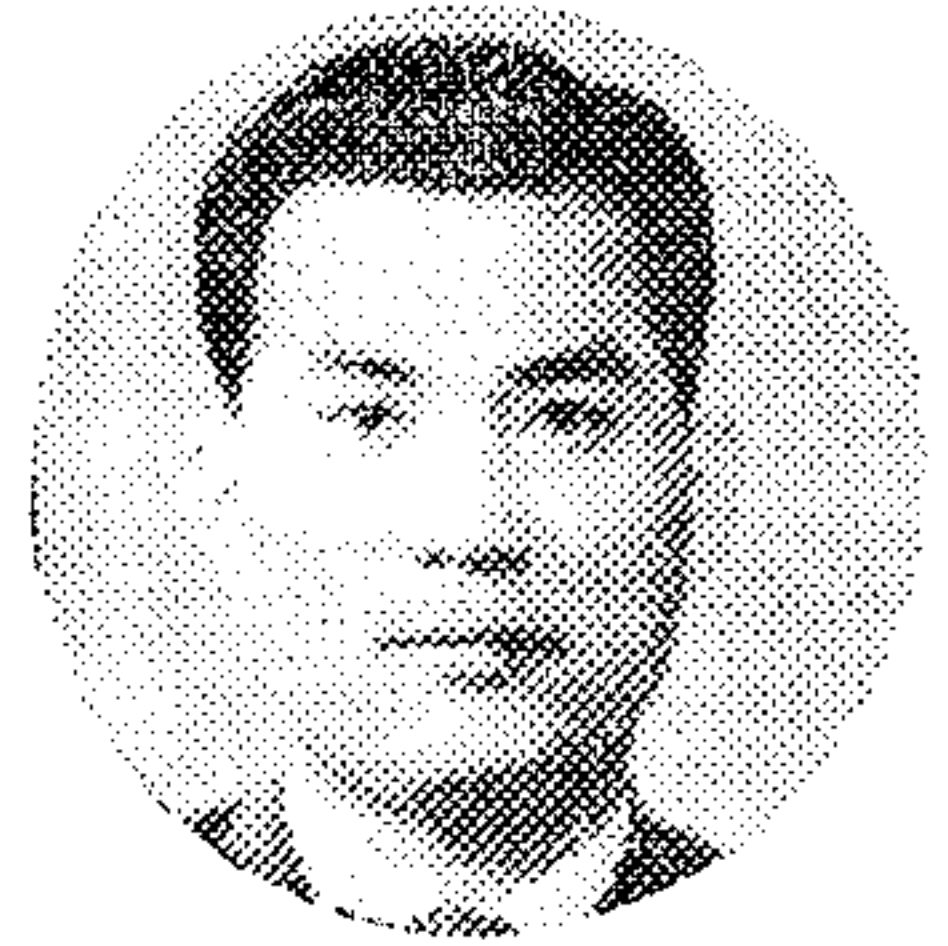
社會環境 一風潮—이란 그 社會의 오랜 歷史的 背景과 (縱線) 地理的 環境 (橫線) 이란 두 線이 交叉하는 點(現實)에서 生存하는 人間들이 形成하는 環境으로서, 이 交叉點은 固定된 것이 아니고, 歷史가 흐르고 있듯이 時時刻刻 流動하는 것으로 따라서 그 社會속의 人間들의 教養과 努力如何에 따라 크게 變革改善시킬 수 있다는 可能性을 지닌것이라 생각 된다.

우리들 韓國사람이 日本에 가서 一日本뿐만 아니라 先進國에 가면 어디서나 곧 볼 수 있는 光景이지만— 地下鐵이나 버스나 또한 電車(우리가 말하는 汽車)를 타면 누구나가 느끼는 共通點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것은 乘客의 거의가, 앉아

있는 사람은 勿論 서있는 사람까지도 무엇인가 책을 읽고 있다는 點이다.

學生은 學生대로, 勞動者는 勞動者대로 男女老少 할 것 없이 印刷物을 읽고 있다.

또 많고 적고 間에 사람이 모여드는 食堂이나 茶房같은데 가면 우리들 周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니 그렇게 큰 소리로 야! 자! 하는 것에 무슨 自己의 權力이나 나타내듯이 自信滿滿한 表情으로 “야! 빨리 가져와!” “야! 어떻게 됐어!” 샷대질을 하면서, 게다가 담배재를 아무데나 툭툭 떨어뜨리면서 고함치는 光景이란 볼 수도 없고 또한 想像 할 수도 없다. 注文받아 놓고있는 것도 아니요, 順序에 따라 熱心히 나르고 있는 아이에게 소리 소리 지르는 것은 乘車때의 새치기 心理와 通하는 것이고 텃쉬아워 때 밀린 모든 車가 크락손을 눌러 온통 騷亂을 피는 心理와도 같은 것으로 누구나가 빨리 먹고 빨리 가고싶은 마음은 같으나 미



쳐 가져오지 못하고 또한 밀려 못 나갈 때는 보이지는 않아도 그만한 事由가 있어 停車하고 있다보면 크락손 놀러왔자 別道理가 없는 것을 空然히 그 야단을 치고 있다. 茶房이나 食堂에서 默默히 앉아 冊이나 新聞을 보면서 自己 順序를 기다리는, 또는 핸들을 잡고 默默히 앞 車 나가는 것만을 기다리는 모습이란 우리 韓國式 눈으로 보면 답답하고 바보들만 같이 보인다.

말이 좀 脫線된 것 같으나 至極히 작은 社會相의 一面을 例擧한 것은 “餘暇의 活用”의 序論에 지나지 않는다.

地球의 回轉週期를 便宜上 하루로 定하고있는 터에 우리들의 하루나 美國人이나 英國人이나 日本人의 하루는 24時間이다. 地球上 140餘個國이 뛰는 國際마라톤에서 우리 韓國은 只今 몇 번째쯤에서 뛰고 있을까? 先頭를 달리는 그룹(所謂先進國)과 中間位置를 달리는 그룹(開發途上國) 맨 뒤에서 뛰고있는 그룹(後進國)이 自己 民族과 國家의 名譽와 運命을 걸고 死力을 다해서 뛰고 있다. 앞서가는 選手(國民)를 하나씩 하나씩 앞질러 나아가기란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다. “거북이와 토끼”이야기 처럼 先進國 國民이 좀 낮잠이라도 자준다면 그간 뛰어가겠으나 國際競爭이란 그러한 童話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뒤떨어진 現實的인 우리 立場에서는 理由는 고사하고 남이 1m 뿔때 나는 2m를 뛰고, 남이 1卷의 책을 읽을 때 나는 2卷 3卷의 책을 읽어야 하겠고 남이 한時間 일 할때 나는 2時間 3時間 睡眠時間을 들여서라도 일하는 道理밖에 없다는 至極히 簡單한 答을 얻게 된다.

나는 이러한 精神姿勢가 社會에 充滿되

어 그것이 社會風潮가 될때, 앞서가는 選手의 不意의 事故를 期待하거나 남을 헐뜯고 謀陷해서 죽인 死體를 밟고 所謂出世云云하는 일이 없는 社會 環境이 形成될 것이며, 꾸준히 그리고 默默히 있는 힘을 다해서 뛰는 努力밖에 없다는 思考의 社會가 올 것으로 생각된다. 國際 마라톤에서 自己 努力 不足으로 맨 뒤를 뛰다가 아예 棄權해버린 自滅의 길의 防止는 政治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은바 自己의 任務에 充實히 安心하고 필수 있는 社會環境을 바랄 뿐이다. 이러한 思考가 尊重되고 이러한 社會風潮가 普遍化되지 않는 限, 前進은 고사하고 現位置도 지키지 못한 그러한 國際的인 地位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人生 60이다 또는 70이다 하지만 社會에 奉仕하고 活動할 수 있는 時間은 不過 40—50年 可量이다. 남에 比해서 하루 2時間式 보람있는 活動時間을 보낸다면 4年이란 “삶”을 ——睡眠時間을 뺀 活動時間만으로 따진다면 7·8年—— 더 사는 計算이 나오며 하루 單10頁式의 讀書를 한다면 40년에 146000頁 即 300頁 書籍 487卷을 讀破하게 되니 그 人生 얼마나 보람있는 삶이 되겠는가!

速記課에 와보니 ——速記課뿐만이 아닌 듯도 하지만—— 定期國會때는 本會議다, 常任委員會다, 特別委員會다, 하여 정말 눈 코 뜰사이 없이 바쁘고 徹夜하는 것도 일수다. 反面 休會나 閉會때는 할일이 없어 時間보내기가 따분하기 짝이 없는 듯도하다. 이러한 現狀은 다른 職場에서는 想像도 할 수 없는 일로서 國會 特別히 速記課만의 特色(?)이라 하겠다. 어떤 意味에서는 이러한 環境의 職場이란

(活用如何에 따라서는) 가장 理想的인 職場이라 생각된다.

會議錄을 보다 正確히, 보다 短時間에, 보다 적은 經費로서 發刊하여 民主憲政의 全貌를 永久히 保存토록 하는 일은 우리 課의 一次的인 任務이고 보면, 이러한 責任과 義務遂行에 있어 조그마한 蹉跎도 용서 될 수없다는 것은 勿論이지만, 이러한 責任과 義務를 다하면 自己 할일 다했다는 思考는 現在의 우리— 開發途上國家의 國民 더욱이 公務員으로서는 있을 수 없고 公務員으로서 또는 國民의 한사람으로서 創意性을 發揮하여 일을 찾아 國家에 社會에 奉仕할 수 있는 또 自己個

人이 보다 資質높은 民主市民으로 發展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生活人이 되어야 겠다.

餘暇를 活用할 수있는 生活人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人生價値는 말 할 것도 없고 餘暇를 活用할 수있는 國民—社會—과 그렇지 못한 國民—社會—과의 發展度는 갈 수록 그 差가 벌어져, 國際 馬拉톤에 있어서의 先進과 後進의 距離는 結局은 棄權하고 마는 地境에까지 到達할것이다.

速記課諸位에게 거듭 強調하고 싶다. 餘暇를 活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또한 그러한 環境을 造成하자고. 個人 社會 國家의 發展을 爲해서.

## (消)

## (息)

### ○ 文公部세미나參席

文化公報部主催로 지난 9月27日 28日 兩日間に 걸쳐 서울 近郊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開催된 <文藝中興의 基本方向에 나한 세미나>에 當協會에서 金仁寧·高用培·崔秉秀·蔡康熙會員이 參席하여 記錄業務를 擔當하였다.

### ○ 轉 出

山岳人의 호프이며 美男 徐皓正會員이 지난 10月 1日附로 總務處 儀典課(國務會議擔當)로 轉出되었다.

### ○ 編輯係轉補

崔龍夏·尹丙直·宋鍾學會員에 이어 지난 10月 20日附로 速記實務의 元老 金允洙·柳智永會員이 編輯係 編輯要員으로 轉補되었다.

### ○ 受 賞

지난 10月 24日 國會事務處 全職員의 登山 및 낚시大會가 서울 近郊 恭陵에서 行해졌던바 登山部門에서 速記課(李潤和·高隆繁·全在坤·尹玉姬)가 堂堂 1等으로 入賞하여 優勝 트로피를 獲得했으며 낚시部門에서도 速記課의 金善弼會員이 大魚 1等賞을 獲得하여 恭陵 푸른 벌에 速記課만세소리가 우렁차게 메아리쳤다.



# 發言과 記錄의 限界

— 速記士는 技能工이 아니다 —

金 鎮 基

(國會 速記 擔當官)

## 1. 速記士는 技能工이 아니다.

技能工이라고 하면 技術的인 能力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一般이 받아들이는 技能工에 대한 「이미지」는 分業化된 工場에 있어서 어떤 部品을 능숙하게 處理해내는 技術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다. 卽 특수한 專門知識도 필요없고 머리도 쓸 필요가 없고 오직 어떤 一定한 動作에 숙달만 되면 되는 것으로 認識이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一般的인 概念은 올바르게 파악된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그 技術의 類에 따라서 差異도 있지만 「오토메이션」過程에 있어서의 어떤 한 「파트」와 같은 機械적인 動作以外에 銳利한 觀察力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速記士는 技能工이 아니다라는 말 自體가 모순을 內包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一應 一般的인 概念으로 파악을 해서 흔히 速記士에 대한 「이미지」가 말을 機械的으로 받아적는 사람 정도로 흔히 인식이 되고 있고 이것이 技能工과 同一視 되는 所以라 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이 客觀적 立場에 있는 第3者의

경우라면 認識不定으로 들려 굳이 탓할 理由도 없겠지만 速記士 自身이 그러한 意識에 빠진대서야 말이 안되겠기에 速記人들의 올바른 姿勢를 위해 發言者과 그 發音을 받아적는 速記士의 限界에 대해서 간단히 論해 보고자 한다.

## 2. 速記士는 말을 적어야 한다.

새삼 速記의 定義를 여기서 論할 필요는 없겠으나 速記가 사람의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文字에 의한 言語表現으로 바꾸는 活動이라는 一般的인 定義에 따를 때 速記士는 發言者의 音聲에 의한 言語表現을 그대로 받아적어 文字에 의한 言語表現으로 바꾸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하등 主觀이 介入될 除地나 判斷力이 作用할 除地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말을 받아적는 것이 아니라 發音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 된다는 一種의 表音主義가 成立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速記란 音을 받아 적는 것이 그 任務가 아니고 말을 받아 적는 것이다. 卽 <바람뚫>은 말이나 <바담뚫>은 音이지 말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바람뚫을 바담뚫이라고 하는 사람

이있겠느냐 하겠지만 그러한 誤謬는 發言過程에서 또는 傳達過程에서 때로는 聽取過程에서 흔히 發生되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바람퐁이 바람퐁으로 傳達되었을 때 그 誤謬의 原因이 發言過程에서 發生했느냐 또는 傳達過程에서 發生했느냐 聽取過程에서 發生했느냐 하는 責任限界를 따지기前에 速記士는 音を 적는 것이 아니고 말을 적는다고 할때 그 限界는 自明해지는 것이다.

### 3. 速記士의 責任과 그 限界

速記士는 말을 받아 적는 기계 또는 技能工이 아니다. 速記技術에 聽取技術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所以도 여기에 있으며 速記士가 길이는 몰라도 넓은 知識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理由가 거기에 있다. 비록 發言過程에서나 傳達過程에서 바람퐁이 바람퐁이 되었다 하더라도 速記士는 이를 區分 바람퐁으로 記錄해 낼 줄 알아야할 責務가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그 限界點이 모호한 것 만은 사실이다. 여기서 한발만 擴大해석을 하면 修文主義로 흐를 염려도 있고 어설피게 主觀이 介入하여 發言者의 意圖를 歪曲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 限界點이 極히 모호하다 하겠으나 가령 뚜렷한 根據있는 數字 錯誤라든가 앞서 例를 든 바람퐁과 같이 말이 아닌 音의 表記가 速記라는 이름으로 行해진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一般聽衆의 경우는 一言一句 個個의 言語를 理解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自己가 모르는 單語가 한두마디 섞인다 해도 發言이 正確하지 않다 해도 그 全體의 意味를 理解하는 데 支障이 없으면 되는 것이고 自己나름 대로 理

解를 해도 그만이지만 速記士의 경우는 全體로서의 意味를 把握함과 同時에 이를 構成하는 一言一句를 모두 말로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되고 가령 發音이 不明瞭하더라도 使用하는 語彙가 가지 각색이라 하더라도 그 發言이 理性에 기초를 두고 行해지는 것으로 假定하여 無理로 曲解함이 없이 同情的 態度로 들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때문에 速記士로서의 충분한 素養을 평소에 갖추도록 해야 하며 發言者의 意圖가 제대로 傳達되도록 最善의 努力을 해야 할 義務가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實務上의 限界는 어디에 있겠느냐? 各各의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때문에 一律적으로 어떤 線을 뚜렷이 긋기는 어렵겠으나 最少限 다음과 같은 限界點은 認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첫째, 뚜렷한 根據있는 數字의 錯誤는 그 原因이 어디에 있든 訂正해 주어야 한다.

둘째, 固有名詞의 錯誤는 반드시 訂正해 주어야 한다.

셋째, 論理上 뚜렷한 前後矛盾이 있는 말이거나 분명한 發音의 錯誤는 發言者에게 물어 訂正해야 한다.

### 4. 結 論

물론 以上과 같은 最少限의 限界點을 定해 놓고 이를 實務上에 適用하는데 있어서도 原稿는 即時 나가야 하는데 發言者는 자리에 없어 確認할 길이 없다든지 여러가지 隘路가 따르기 마련이겠으나 速記錄의 歷史성과 正確을 生命으로 하는 使命을 생각할 때 發言者가 분명히 그렇게 發言했다는 口實로 말이 아닌 音を 表記하는 일은 決코 없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 會議錄의 迅速發刊 方案

國會 · 速記擔當官室

註 : 이 原稿는 國會 常任委員會 速記錄 翌日 發刊을 要求하는 國會運營委員會의 質疑에 對備. 國會 速記擔當官室의 實務速記士增員 方案입니다.

## 1. 問題와 關聯되는 事項

가. 會議錄은 本會議의 會議結果인 國會會議錄과 委員會의 會議結果인 常任委員會 및 特別委員會 會議錄으로 區分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 國會에서는 通常 本會議는 午前 10시에 開會되어 午後 1時頃에 散會하며 常任委員會는 本會議가 散會된 後 午後에 開會하고 있다.

다. 速記士는 現在 T/O上 40個組(80人) (錄音 調査 3人 除外)로 編成되어 1個組는 本會議時 10分씩 交代하고 委員會會議時는 20分씩 交代하고 있는바 10分間 速記時는 120分, 20分 速記時는 240分の 翻文時間이 所要되므로 이 人員의 現狀 業務能力은 1個 委員會當 15個組(30人)를 基準하여 3個 委員會를 勘當하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4時間後에야 翻文을 完了하고 있다.

라. 10分間의 速記는 120分間에 걸쳐 翻文하게 되므로 本會議가 午後 1時頃에 散會할 때에는 翻文이 끝나고 原稿를 編輯係要員이 校閱하고 編輯하여 印刷所에

引繼하는 것은 午後 3時半頃이 되며 이를 印刷所에서 文選하고 植字하고 組版하여 初校를 보게 되는 時間은 通常 6時 以後가 되며 再校 3校를 거치자면 本會議錄發刊을 위해서 校正要員은 午後 10時頃까지 夜勤하고 있다.

마. 委員會 中에서 國會運營委員會 및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會議錄은 翌日 發刊되고 있으나 通常 同委員會開會中에는 本會議 및 各 常委員會會議가 없는 關係로 可能的 것이나 會議가 午後 1時頃까지 계속 될 때에는 速記士 및 編輯 校正要員이 徹夜勤務를 하고 있다.

바. 會議錄의 編輯 校正은 新聞雜誌와는 그 性格이 달라 原稿에 의한 것이 아닌 直席發言이기 때문에 그 內容을 編輯 校正要員이 住意로 添削할 수 없을 뿐 아니라 各 分野에 걸친 專門 述語라든가 各 外國語 數字 등에 敏感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要員은 相當 期間의 訓練을 要하게 된다.

사. 印刷所는 1日間에 할 수 있는 文選 植字, 組版, 整版 등의 能力이 限定되어 있고 國會의 會議錄만을 取扱하는 것이 아니고 他印刷物도 取扱하고 있는 關係上

3個 印刷所로서는 原稿의 量이 많을 때에는 委員會會議錄의 發刊을 위한 印刷能力이 미치지 못하는 例도 있다.

아. 우리나라 會議錄 發刊作業 過程과 體制上 비슷한 日本國會 記錄部 現況을 살펴보면 衆議院 155名, 參議院 134名에 本會議의 會議錄은 會議後 24時間 以內에 配付하고 委員會會議錄은 通常 1週日後에 配付하고 있다.

參考로 우리나라 國會와 日本 議會와의 年度別 會議時間을 比較하면 別添과 같다

## 2. 方 案

各 常任委員會는 統計적으로 볼 때 同日 字 會議開催委員會가 平均 3, 4個 委員會가 되며 1個 委員會 會議時間을 3時間으로 볼 때 1日 委員會의 總會議 時間은 9~12 時間이 되는 바 午前 本會議 會議錄을 翌日 發刊하고 있는 關係上 現在의 構成과 作業過程으로서 常任委員會 會議錄을 翌日 發刊하는 方案은 다음과 같다.

가. 速記士 및 編輯 校正要員 增員

速記課의 人員을 現 118名에서 193名으로 增員(增員內譯 別添)한다.

나. 印刷所의 分散指定

會議錄의 印刷能力이 可能하도록 本會議會議錄 擔當 1個所 常任委員會 會議錄 擔當 4個所로 한다.

다. 人員 增員에 따라 課編制를 3個課로 改編하는 同時에 編輯 校正 業務도 速記士가 擔當하도록 한다.

로. 但 4個 이상의 常任委員會가 同日 同時에 開會되어 3時間 이상 會議繼續 때에는 會議錄의 翌日 發刊이 不可能할 때 도 있음.

## 增員 算出 內譯

1日 4個委員會가 同時에 開催하는 것을 基準으로 한다.

### 1. 所要人員

速記士	120人(現 80人)
編輯校正	47人(現 24人)
其 他	26人(現 14人)
計	193人(現 118人)

### 2. 算出根據

가. 速記士(1個組 10分速記)

1個組當 翻文所要時間	120分
休息時間	10分
委員會往復所要時間	10分
速記前後委員會待機 및 係長檢討	10分
計	150分

$150分 \div 10分 = 15個組$  (1個組 10分速記)

$15組 \times 2人 = 30人$  (2人 1個組 1個委員會 所要人員)

$30人 \times 4個委員會 = 120人$

速記士 1個組가 速記完了後 2時間30分이 經過하면 脫稿하고 다시 速記에 動員할 수 있음.

本會議는 上記 人員이 勤務

나. 編輯 校正人員

1) 本會議(會議時間 3時間基準)

報告事項作成	60分
編輯 및 原稿校正	$300枚 \times 20分 = 600分$
初 校	$30枚 \times 20分 = 600分$
再 校	$30枚 \times 20分 = 600分$
校 了	$30枚 \times 10分 = 300分$
計	2160分

$2,160分 \div 400分 = 5人$

(1日 1人 平均 400分 勤務)

2) 委員會(同日同時平均 400分 勤務)

委員會當 會議時間 3時間

總會議時間 3時間×4個委員會  
=12時間

總原稿校正 및 編輯  
1.200枚×2分=2,400分  
初 校 120枚(組版)×20分=2,400分  
再 校 120枚 ×20分=2,400分  
三 校 120枚 ×10分=1,200分  
計 8,400分

8,400分÷400分=21人  
(1日 1人平均 400分 勤務)  
21人×2(隔日)=42人  
5人(本會議)+42人(委員會)=47人

우리나라 國會와 日本 兩院의 年度別會議時間 및 速記課 人員 比較

年度別	日 本 國		韓 國
	參 議 院	衆 議 院	
1964	1,619	2,531	2,714

65	1,233	1,972	1,241
66	1,543	2,131	2,217
67	1,373	2,143	867
68	1,294	2,123	2,386
69	1,473	2,476	955

定員 職務 類分別	134人	155人	118人
速記實務	108	120	80
校 閱	14	21	24
其 他	12	14	14

但 校閱要員에 있어 日本의 경우는 原稿校閱 및 編輯業務에 限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原稿校閱, 編輯 및 印刷校正까지 擔當하고 있음.

## 原 稿 募 集

다음 第9號는 72年 3月末에 發刊됩니다. 여러분의 좋은 玉稿는 서슴치 마시고 2月末日까지 編輯室로 보내 주십시오.

- \* 表 紙 그 림.....세로 가로 15센티정도
- \* 研 究 發 表.....2百字 원고지 15~25枚
- \* 生 活 記 錄.....2百字 원고지 12~18枚
- \* 隨 筆.....2百字 원고지 6~12枚
- \* 回 想 記.....2百字 원고지 12~18枚
- \* 詩 時調, 其他 提言 등



# 速記와 錄音

錢 石 根

(國會速記課錄音擔當)

○ 國會法 第108條 2項

「會議錄에는 速記法에 의하여 모든 議事를 記載하여야 한다.」

○ 國會法 第64條 2項

「委員會의 議事는 速記法에 의하여 이를 速記한다. 그러나 委員會의 議決로 이를 省略할 수 있다.」

會議錄(以前에는 速記錄이라 했음)의 作成에 있어서 먼저 相異한 여러 記錄方法을 알아보고 싶다. 周知하는바 要點筆記(略記)法과 速記法으로 大別할 수 있겠는데 要點筆記란 發言의 趣旨를 要約記錄하는 것으로 이럴 때에는 어느 特出하지 않는 發言部分을 修正해도 無妨하겠지만 速記法에 依한 記錄일 때에는 全然 문제가 틀릴 것이다. 따라서 速記法이란걸 追究해 본다면 흔히 速記를 한다는 것은 速記文字에 依해 記錄된 것을 常用되는 一般文章으로 되고 친 것을 速記法에 依한 速記라고 일컬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速記士가 全적으로 錄音機에 依한 會議錄作成乃至는 修正이란 것은 妥當性を 發見할 수 없단 말인가? 다시 말해 速記士가 補助로서의 錄音機 利用은 모르겠지만 純全히 錄音機에 依한 會議錄이란 認定될 수 없을 것인가? 여기에서 비로소 速記



法이란 무엇을 意味하는가를 두드러지게 밝혀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누군가가 「무엇이다」 또는 「무엇입니다」라고 있는 그대로를 記錄해 주는 것이 速記法에 依한 會議錄이라고 할 수 있을진대 全적으로 「테이프·레코더」에 依해 記錄을 고쳐나가게 된다면 아마도 速記法에 依한 記錄이라고 말하기에는 困難을 느낄 것이다. 특히 速記士의 立場에서 본다면 會議가 進行되고 있는 場所에서 速記士가 귀로 듣고 (會議狀況도 參酌) 쓴 뒤 一般文章化 시킨 것이 速記法에 依한 會議錄이라고 斷言하는 데에는 異議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境遇에는 記錄自體의 性能面만 얘기한다면 「테이프·레코더」가 훨씬 優越하다는 點을 首肯치 않을 수 없는 데에도 速記士가 全然 參席記錄치 않았다고 해서 現行 國會法에서 明記된 速記法에 依한 會議錄으로 받아들여 지지 못할 것인가? 여기에 于先 疑問

點이 생긴다고 보아야겠다. 어느 團體의 會議場에서 錄音機로 記錄했다가 나중에 要點筆記를 하는 事例가 많은데 言必稱 要點筆記는 論外로 하고 速記士가 參與하는 않았다는 치더라도 錄音이 完璧한 것을 다시 記錄했다면 速記法에 依한 會議錄의 性格을 띄지 못 할것인가? 애기가 좀 우습지만 速記士로서의 資格要件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速記士처럼 行勢하고 記錄한 뒤에 實質的으로는 錄音된 「테이프」에 依存해서 會議錄을 完成했다면 速記法에 依한 것도 아니므로 完全無效라고 꼬집을 수 있을 것인가? 會議錄의 効力を 發生할 수 있는 알맹이가 있고 錯誤가 없는 데에도 말이다……. 때문에 速記士만이 唯一하다고 主張할 수 있는 論據가 稀薄한 結果만이 惹起된 것 같다. 雪上으로 누구나 携帶操作 할 수 있는 「테이프·레코더」는 次置하고 먼 앞일을 내다본다면 電子技術의 눈부신 進歩로 發言이 끝나는 即時 文章化된 完璧한 會議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壯談할 수 없을 것이다. 宇宙空間에서의, 狀態와 소리까지 正確히 「체크」할 수 있는 오늘날 人間이 必要로 하는 어떤 問題

를 「컴퓨터」에 指令하면 文章이 아닌 말로서까지 對答을 해 줄 수 있는 器機가 發顯되지 않는다고 豫測 못 할 것이다. 아뭏튼 좀더 完璧한 會議錄이 作成될 수 있다는 假想이 成立될 때 速記士가 速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法的 効力を 云云할 수 있는 會議錄이라고는 決코 말 못할 것이다. 이런 點을 미루어 볼 때 速記法이란 것 만을 언제까지나 내 세울 수는 없지 않나 생각된다. 그렇다고 당장 速記士 無用論은 더 더욱 나올 수 없고 또 그렇지 못할 것도 現實上 分明하다. 또 設使 發音이 即刻 文章化 될 수 있는 어떤 器機가 發明될 지언정 아마도 特定한 研究室에나 備置할 수 있지 각 會議에서 까지도 利用할 수 있으리라고는 期待 못 할 것이다. 그것은 經費의 面에서도 마찬가지다. 새삼 말하거니와 速記法만이 唯一하게 効力を 發生할 수 있는 條件일 것인가? 몇가지 이런 저런 事例만 提示하는데 그 뜻이 있었지만 結論은 亦是 우습게 된 풀이지만 自繩自縛 뿐이다.

### ○ 顧問推戴 ○

그 동안 本協會 發展을 위해 物心兩面으로 큰 協助를 해주신 本協會 名譽會長 李孝祥前國會議長님과 本協會顧問 裴汝鎬前國會議務總長님이 事情에 의하여 그 職을 辭任 하심으로써 다음과 같이 새 名譽會長님과 顧問을 推戴 하였습니다

名譽會長 白斗鎭(國會議長)  
顧問 鮮于宗源(國會議務總長)

# 文章으로 본 速記錄

金 致 元

( 國 會 速 記 課 )

## ○ 公正하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公正한 것은 국왕, 의장, 판사, 속기사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말을 뒤집으면 가장 公正해야 할 사람의 하나가 속기사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 公正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국왕은 그 절대권력에서, 의장은 정치적 불편부당에서, 판사는 正義로운 법의 실현에서 각기 公正성을 보유하지만 속기사는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알고 보면, 속기사의 公正함이란 국왕 등의 그것과는 달라서 별로 자랑스러운게 못 될지도 모른다. 일의 성질이 寫眞을 찍는 것과 같고, 錄音을 하는 것 같이 남의 이야기를 들리는대로 記錄해주면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하지만 一字一劃을 어김없이 적는 것만이 과연 公正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말을 할 때, 「에...」 「마...」 따위의 間投詞를 심하게 집어 넣기도 하고, 사투리를 쓰기도 하고, 「不實」 「捕捉」 「衛戍令」 같은 한자어를 「불실」 「포착」 「위솔령」 등으로 발음한다. 명백한 숫자를 잘못 말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

다. 애기에 치중한 나머지 「천사-악마」 정도로 정반대의 낱말을 계속 바꿔 쓰면서도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런 때에는, 좀 귀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청중들이 訂正을 해 가면서 들어준다. 기록하는 사람도 마땅히 정정해서 기록할 것이다. 公正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실수한 말을 실수한 그대로, 지저분한 간투사까지도 고스란히 기록해야 한다면 嚴密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公正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기록으로서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처사밖에 안된다.

한결음 더 나아가, 실수따위나 명백한 오류의 시정에만 그칠게 아니라, 속기사는 발언의 내용을 손색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맥에도 손질을 가함이 좋지 않을까? 이 정도의 주장을 나는 試圖해 보고 싶다.

## ○ 말을 잘 한다는 것

국회속기록을 보면 어려운 文字가 간혹 눈에 띈다. 「文字를 羅列한 식의 發言이 아닌 條理있고 내용이 鮮明히 드러날 수 있는 發言을 요구하고 싶다.」(속기계 3호 참조) 라고 얘기한 某嬢의 심정에는 누구



나 공감할 것이다. 시간과 경비와 정력을 덜기 위한 議事의 능률면으로 보아서도 「간명한 발언」은 지극히 요청되는 것이다 故意的인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때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군더더기가 많은 말은 시간의 낭비, 분위기의 권태로움이 겹쳐 2중의 낭비를 가져온다.

아마 국회회의록에서 군더더기 말이나 오해로 인한 잡음의 기록을 제거한다면 상당한 회의록「페이지」가 줄어들 것이다. (말을 바로 배우고 쓰는 길이 곧 국가예산의 절약임.) 個的으로 알아 보아도 좋을 것을 구태여 회의석상에서 들기 때문에 기록에 올라가는 수도 있다. (하기는 뻔히 아는 것도 변죽을 치느라고 짓궂게 묻는 사람도 있다.)

기념식이나 웅변대회에서처럼 잘 다듬어진 원고가 이미 갖추어져 있으면 속기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경우란 흔하지 않고, 미리 다듬어진 원고라도 실제 낭독을 해 보면 듣는 사람에게는 대번에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앞뒤편이 척척 들어맞는 문장이라도 그것이 연설로써 반드시 훌륭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억양과 감정을 넣고 「제스처」로 보조를 해 가면서 적당히 반복도 한다 그것을 몽땅 써 놓고 보면 거개가 문장으로서의 낙제이다. 絶世의 雄辯등이 모두 그러했으리라. 「부루터스」와 「안토니」의 웅변이 지금 남아 있다. 바로 그와 똑같은 내용의 웅변을 「부루터스」나 「안토니」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외쳤다고 하자. 과연 똑같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겠는가,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보고 탄복하는 이상으로 當代人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웅변이지

만 우리들이 읽는 다듬어진 어조로만 말해지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빌리·그라함」목사의 설교집은 잘 정리되어 우리 손에 들어오지만, 설교자체는 중언부언, 반복, 또 문법에 어긋나는 것도 부지기수였을 것이다. 그 설교가 기록되어진 뜻은 내용이나마 보존하자는데 있지 않을까. 그 감동은 당시의 청중들밖에는 모른다.

말의 질서와 글의 질서는 다르다. 이런 뜻에서는 言文一致에도 한계가 있다. 말을 가지고 감동을 주는 방법과 글로써 감동을 주는 방법은 다르다는 말이다.

물론 회의록을 읽고서 그 회의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類推할 수는 있다. 발언자의 肉聲까지도, 표정까지도 想像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내 상상력으로는 그것도 피곤한 노릇이고.) 진지했고 열띠었던 발언들이 회의록에서는 맥빠진 活字가 되어 드러누어 있는 느낌을 받기가 일수이다. 활자에는 말했을 때의 감동이 排除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법같은 것을 생각지 않아도 잘 이해되던 얘기가 글로 옮겨놓으면 사정이 一變한다. 연사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는 말이었지만 활자화되고 나서는 문장의 구실을 해야 하므로, 문장다운 문장으로 손질을 해야 한다. 알맞는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전래민요들이 떠들다가 채보가 될 때에는 다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台本이라도 演出의 효과에 따라, 그리고 같은 樂曲이라도 演奏力量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明瞭하고 要領있는 발언, 또 그러한 회의가 되어 적기를 부탁하고, 다음 그에 부응하는 기록이 요청된다.

## ○ 기 록

몇가지 예를 들어 본다.

### (1) 불필요한 반복

(보기 1)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이것은 역시 헌법이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에 대해서」라고 말했다가, 잠깐 쉬고, 「질의에 대해서」라고 고쳐 말했다. 「질문」이나 「질의」나 하등 뜻의 차이는 없으므로 어느 하나는 지워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하는 것도 말에 이가 빠진 격이다.

(보기 2)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라는 제구실 못한 부사절을 삭제하든가, 아니면 밑에 가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라고 고쳐주자는 말이다. 즉석에서는 이렇게 말이 우스워져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

### (2) 잘못된 助詞

(보기 3) 이 인사행정 문제가 좀 더 정확성을 기하고 제3자로 하여금 공평타당한 그러한 인사가 돼 주기를 바랍니다.

능동형으로 시작해서 피동형으로 끝난 비틀어진 글이다. 주어가 뒤바뀌고 있다. 「이 인사행정문제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하여, 제삼자로서도 공평타당한 인사가 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 (3) 띄어 쓰기

(보기 4) 답변 가운데 장관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 있는 사유로써 지식인들은 불기소해 놓으면 증거를 다 인멸시킨다 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래와 같이 줄을 잡아 주면 어떨까?

답변 가운데 장관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있는 사유로써 지식인들은 불기소해 놓으면 증거를 다 인멸시킨다」

이었습니다.

### (4) 부호 사용

대부분의 회의록들이 띄어 쓰기와 부호 사용을 앓고 있어서 더 읽기 어렵다. 문장에는 손을 안 대더라도 적당히 줄을 바꾸어 주고, 適所에 부호를 사용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훨씬 나을텐데.

소학교 문장론같이 예를 더 들기도 속스럽지만, 문제는 그런 초보적인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장으로 회의록이 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부호를 사용하면 발언을 건드리지 않고도 그 면모를 刷新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현재 국회회의록에서 쓰이는 부호는 마침표, 쉼표, 물음표, 말없음표, 느낌표 다섯가지 뿐인데 그나마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줄바꿈표, 괄호 등은 쓰지 않을까? 좀 수월하게 읽고, 얼른 납득이 가게 하려면 다른 것은 몰라도 부호만큼은 제대로 써

주어야 할 게 아닌가.

말하는 사람이야 감정의 강약, 호홉, 말의 힘줄, 야무진 맺음이나 부드러운 맺음이 자유롭겠지만, 그런 것이 제거되고 난 뒤에는 부호가 어느 정도 대신해 주는 수밖에.

장내가 정정 올리도록 「여러분!」하고 외쳤을 수도 있고, 들릴까 말까하게 숨을 좀 들리는김에 속삭였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커다란 「고딕」체 활자를 쓰고, 후자의 경우는 작고 가느다란 활자를 쓸 것인가.

목소리까지 전해줄 필요가 없고, 똑같은 감정을 전하기가 불가능하다면 내용만이라도 명료하게 남겨야 하겠다.

#### ○ 隘路點과 좋은 점

남의 말을 다루기란 선블리 해서도 안 되고 골치도 아픈 일. 숫제 멋대로 내버려 두는 편이 안전하고도 속편할 것이다

말 한마디로 물의를 일으키고 야단나는 수가 간혹 있다보니 깨끗이 녹음화해서 책임을 면하자는 생각이 앞선다.

또 책임자들은 그들대로, 속기사의恣意에 의해서 말이 歪曲되지 않을까, 核心을 빠뜨리거나 않을까 우려할지 모른다.

속기사를 不信하거나 과소평가할지도 모른다.

사실 필요이상의 수정은 번거르워셔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우리의 재량과 책임을 넓혀갈 수 있고 또 자질향상을 도모하는 첩경도 되리라 믿는다. 국어에 대한 이해, 문장에 관한 識見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專門的인 水準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약간의 노력으로 가능해질 일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기로 한다. 회의록을 市販하자는 주장을 한 분이 있다.(속기계 7호 참조.) 국회속기록이 시판되면 국민들의 손에 쥐어질 수 있고 누구나 民意의 殿堂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데 그에 앞서 할 일은, 속기록의 體制도 대중적인 것으로 改善해야 하겠고 또 負擔없이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하겠다. 이런 뜻에서도 속기사들은 이제까지 말한 것 같은 재량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외동적이기만한 作業에서 벗어나 나의 手功을 들여 일할 수 있다는 즐거움도 값진 것이 아닐는지.

### 第 4 回 定期 總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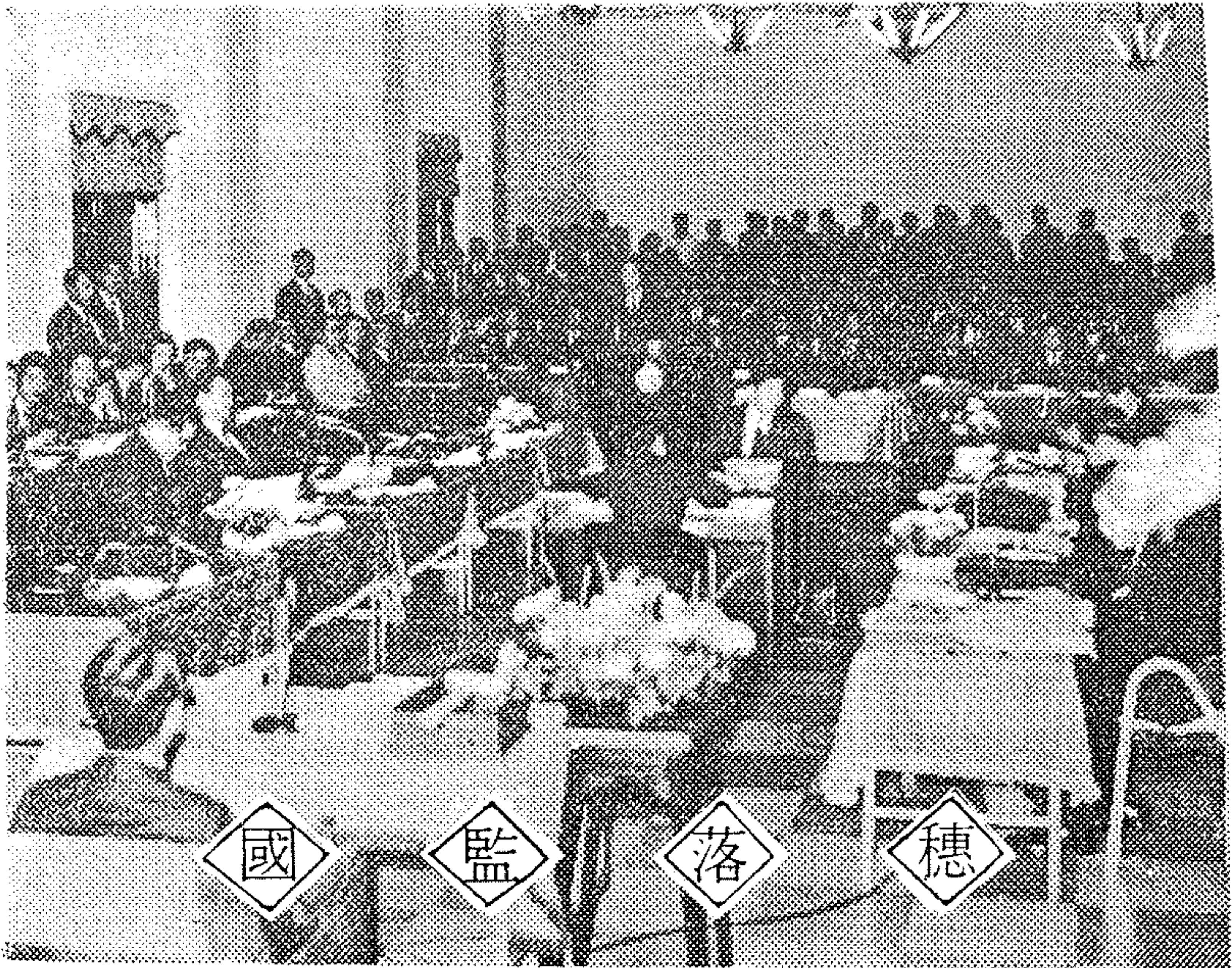
○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定款 第18條 2項에 依한 1971年度 定期總會가 1971年12月30日 午前10時 國會特別委員會 會議室에서 開催되는바 그 附議案件은 다음과 같다

第 1 號議案 會務報告

第 2 號議案 1971年度 決算承認의件

第 3 號議案 1972年度豫算案및 事業計劃承認의件





## 室 輯 編

與·野가 勢力均衡을 이루었다 해서 그 어느때보다도 온 國民의 눈들이 議事堂을 지켜보는 가운데 第8代 國會가 開院된 以來 憲法第57條와 國政監査法 및 國會法第124條 125條 規定에 依한 1971年度 一般國政監査가 10月 29일부터 11月 18일까지 13個 常任委員會別로 一齊히 全國 구석 구석에서 實施되었다.

21日間の 監査期間 동안 議員과 一舉一動 침식을 같이 하며 各 監査班을 隨行했던 平均 10年以上의 貫錄을 지닌 速記士들이 어느날 오후 疲勞를 풀겸 한 자리에 모여 說往說來——國監餘話가 꼬리를 무는 放談속에서 各 常委別로 몇가지씩만 골라 여기에 한테 묶어 보았다.

### ◇ 法司委

(隨行速記士 金謙善·姜瑞弘)

### ○ 國務總理室監査

連日 激務에 시달리는 速記士가 보기에 딱했던지 R 議員—「速記士를 위해 發言臺에 나가 發言하겠다」하여 座席에서의 free talking 形式의 發言에 지친 速記士들을 間接적으로 위로해 주어 그저 感謝에 感謝했다고 —.

○ 서울拘置所

서울拘置所 視察中 某秘書官——「政治人 이라면 한번쯤은 이곳에 와보아야 할 곳」이라고 한데 대해 어느 짚꿍은 수행원 친구 曰——「그렇다면 당신부터 먼저 들어가야 할 곳」이라고 되받아 때아닌 웃음소리가 앞에 가는 議員님들을 놀라게 했다.

◇ 外務委

(隨行速記士 鄭宇鎔·林來炫)

○ 海外出張脫落

한때 海外公館 國政監査에 速記士도 隨行한다는 說에 들떠있던 速記士들, 外貨 節約 事由로 議員들만 出發해 버리자 씁쓸한 表情을 감추지 못했다고.

◇ 內務委

(隨行速記士 金基英·徐平吉·成千永·金善弼)

○ 서울市廳監査

××× 發動要請節次에 대한 K議員의 신랄한 質疑—— 공교롭게도 담배를 거꾸로 물고 있는 Y市長을 본 K議員, 지금 市長이 담배를 거꾸로 문것처럼 ×××발동요청도 거꾸로 될게 아니냐고 하여 온 監査場이 긴장을 풀고 웃음바다——.

○ 總務處監査

三大宗教論——.

K議員 「우리나라엔 基督教·佛敎외에 요즘 ××敎라는 새로운 敎가 생겨났다. 즉 各級公務員의 昇進 시험에 S總務處長官이 強力 配點하고 있는 打字 때문에 모든 公務員은 이 打字習得이 곧 出世에 通하는 길이라 하여 打字를 宗教처럼 信奉하고 있으니 ××敎가 탄생된게 아니냐」고 하여 萬座가 웃음바다——.

後日談——. 어느날의 어떤 모임에서 某長官이 S長官에게 生日을 묻고 그날은 敎主의 生日이니 歡慶日로 해야 할게 아니냐고 정중할 罪을 걸어 또 한번 웃음 바다가 되었다고.

◇ 財務委

(隨行速記士 全海成·鄭明吉·金鍾壽·黃寅河·朴萬基·徐秉運)

○ 財務部監査

첫날, 브리핑이 끝난후 議員들의 資料提出 要求件數가 무려 500餘件을 넘어 하이 라이트——



덕분에 이 資料 題目을 빼느라고 速記士는 밤을 꼬박 새웠다고.

### ○ 全州煙草製造廠監査

監査宣言에 이어 廠長의 宣誓가 行해졌는데 이 廠長, 宣誓文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더듬거리자 監査班長의 注意까지 받게 되었는데——

監査가 끝난 後 全州에서 光州로 向하는 自動車속에서 廠長이 그 經緯를 (?) 說明하기를 「議員님들이 저희 廠에 오시자 마자 工員들에게 나누어주라고 계란 꾸러미를 주실뿐만 아니라 저희 高층을 먼저 다 아시고 工員들의 수당인상을 꼭 해주겠다는 말씀들에 감복하여 나도 모르게 흥분하다 보니 그만 宣誓文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흠족한 表情——.

이날 監査班 全員이 工員들과 같이 보리밥 한그릇 국한그릇으로 점심을 때웠음을 附記해 둔다.

### ◇ 經科委

(隨行速記士 金仁寧·河大煥)

### ○ 經濟企劃院監査

K長官이 身病으로 入院中이라서 C次官을 상대로 政策質疑를 퍼던 企劃院監査에서 無任所長官을 兼職하고 있는 R議員이 質疑를 퍼자 議員席에서 「아니 長官이 어떻게 次官에게 質疑할수 있느냐」라는 말이 튀어나와 웃음바다가 됐다.

### ○ 經濟科學審議委員會監査

監査가 시작되기전부터 과연 누구를 상대로 質疑를 해야 하느냐로 說往說來——. 即 經濟科學審議委員會 議長은 大統領으로 되어 있고 副議長엔 國務總理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結局 先任常任委員의 宣誓로 監査가 開始되었다.

### ◇ 國防委

(隨行速記士 任哲淳·高在欽·李潤和)

### ○ 鎮海○○大學監査

配車 관계관의 不注意로 가장 먼저 監査場에 到着해야할 速記士를 맨 마지막에 配車했기 때문에 現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監査宣言이 끝난 뒤——. 불이야 불이야 記錄業務에 들어 갔지만 김빠진 맥주같은 氣分.

### ◇ 文公委

(隨行速記士 金敬萬·姜宗遠·李燦鎔)

### ○ 서울大學校監査



S議員 「C議員은 貴校의 首席卒業者 인데도 選舉에 수차 落選된 것을 보면 貴校의 教育方式이 잘못된게 아니냐」고 하여 모두가 大笑——.

11月 14日 朝鮮日報 「聞外聞」까실 欄에 서울大學監查에서 〈Y議員 發言部分 速記 漏落 云云〉에 대한 解明——.

11月 13日 18時 20分경 Y議員 發言中 「外部에서 學生들이 데모를 一部 지속시키기 위해서 資金이나 심지어는 學生들이 내거는 데모 口號까지도 지시 제공해 간다」云云 部分을 K議員이 朗讀要請함으로서 事件이 發端되었던바 速記士는 完全速記가 되어 있었지만 連日 激務로 극도로 피로한데다 朗讀해야할 當該部分의 速記原文을 迅速히 찾아내지 못함으로서 議事進行上 別室에서 非公開로 錄音테이프를 청취하고 K議員의 誤聽이라는 것이 判明되었지만——.

事實이 判明되어 監查가 계속됨으로서 公式的으로 速記原文을 朗讀할 機會를 잃어 하는 수 없이 監查가 끝난 후 班長과 K議員에게 별도로 읽어 주어 速記原文에서 누락되지 않았음을 確認하였던 것이라고.

#### ○ 全北道教委監查

에당초 文公委의 速記士 人力動員 미스로 3名의 速記士가 隨行했는데 地方監查에서 갑자기 2個班으로 分離됨으로서 불가불 1個 監查班에는 1名의 速記士만이 隨行 孤軍奮鬪 해야만 했다. 때문에 全北에서의 경우 長長 10時間씩의 監查가 進行되는 동안 監查班長은 速記士의 生理的 理由를 들어 2時間 마다 監查를 中止시키는 고마운(?) 配慮까지 베풀어줬다고.

#### ◇ 農林委

(隨行速記士 徐萬福·韓鍾烈·楊澈在·申昌秀·崔秉秀·梁源龍)

#### ○ 農協全南支部監查

계속 꼬리를 무는 議員들의 質疑공세에 氣가 죽은 支部長 그렇지 않아도 口辯이 좋지 않은데다 잔뜩 긴장한 자세로 「그 물으심에 대해선 書面으로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대목이 겹쳐지자 참다 못한 J議員—— 「書面 좋아하네!」—— 좁다란 監查場에 폭소가 터졌다. 이 폭소로 갑자기 監查場이 부드러워지자 支部長 겨우 勇氣를 얻어 긴장을 풀고 答辯을 이어 나갈수 있었다.

#### ○ 農林部本部監查

農林部殖産次官補室에 마련된 速記士 待機室에서는 여섯명의 아가씨가 불튀듯 타 이핑이 계속되는데 速記士는 各各 짝을 맞추어 그 옆에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는 情景이 부러운듯 議員隨行秘書官들은 자꾸만 이 房을 들락거렸다. 即 連日 겹치는 監查速記錄의 即曰 反文方案으로 農林部 各局課 1級 打字嬢을 動員 방금 監查場에서

速記를 가지고 나온 原文을 불러주면 打字嬢이 받아 적는 光景이다. 그런데 아들 아가씨들의 손놀림이 어떻게나 빠른지 불러주는 速記士가 오히려 더듬거려야만 했다. 아침 10時부터 밤 10時까지 지루한 作業이었는데도 연 이틀동안 짜증 한번 없이 오히려 速記士들이 어리둥절 할만치 상냥하고 친절하게 보살펴 준 이 아가씨들 중에는 總務處主催 今年度 全國 한글 打字競技大會에서 大統領賞을 탄 아가씨들이 있어 훗날을 위해 여기에 紹介한다.

朴鍾一嬢(20) 金英任嬢(20) 李連鎬嬢(20)

#### ◇ 商工委

(隨行速記士 宋基喆·高用峯·崔 滉·蔡康熙)

#### ○ 商工部本部監査

政策質疑에 대한 R 長官의 답변 한토막 (速記錄 그대로) —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말씀 가운데 실은 제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국장들이 나의 의견에 맞도록 답변서를 적어 내주는 국장들도 있지만 다른 국장들의 답변서는 제가 미처 충분히 검토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릴 시간적인 여유없이 이렇게 읽다보니.....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장내 소성)

사실 아닌게 아니라 장관님 답변은 쪽쪽 가속하여 무슨 原名같은 것을 읽어 내려가니 속기사인들 어찌 다 기록할 수 있었겠는가

할수없이 그 답변서를 잠깐 실례해서 갖다 읽어보니 최근 사용되는 섬유화학전문용어 —

몇 단어 소개하면.....

△ 「에틸린」을 원료로 하는 「에탄글」 및 「아세트 알데히트」공장.....

△ 「부타디엔」을 원료로 하는 「SBR」공장

△ 「사이크로헥산」을 원료로 하는 「카프로락담」공장 등등.....

아이유 답소사.

#### ◇ 保社委

(隨行速記士 趙東植·金東雲·徐吉泉)

#### ○ 釜山市監査

親히 釜山市內 紅燈街를 둘러 調査해 보고 왔다고 前提한 K女性議員 —.

「그곳에 있는 組合에 들렀더니 ○○長官, ○○長官 등 表彰狀이 8개나 걸려 있었는데 이게 무슨 表彰狀이냐」고 하여 周圍가 笑聲으로 가득찼다.

◇ 交通委

(隨行速記士 宋博文・金永春・高太中・權昌茂)

○ 遞信部監査

企劃管理室長 某氏가 한 時間餘에 걸쳐 땀을 흘려가며 熱心히 現況說明을 하고 있었다.

國監에 任했던 某議員, 땀을 흘리며 목이 쉬여가는 企劃管理室長이 보기에 측은(?) 했던지 갑자기

「委員長!」

「저 室長님 열차 드시고 좀 쉬었다가 하시도록 합시다. 땀도 흘리셨는데…」

委員長…「거의 다 된것 같은데 끝내고 쉬시도록 하지요」 하자

管理室長…기다렸다는듯 「以上으로서 當部 現況 說明을 마치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座中爆笑

◇ 建設委

(隨行速記士 朴相昱・朴保和・李德九)

○ 高速道路上 監査

強行軍의 監査속에서도 高速道路를 달리다가 갑자기 車를 멈추게 하고 高速道路의 포장 두께를 직접 구멍을 뚫어 測定하는 등 路上監査가 實施되어 周圍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알 림>

協會에서는 1月中 第 10回 冬季無料速記講習을 實施할 計劃입니다. 例年에 따라 많은 受講生이 豫想되는 바 보다 더 効率的인 成果를 거두기 위해 會員 여러분의 積極的인 協助 있으시기 바랍니다.

講習希望法式에서는 所定の 書式을 갖추어 協會事業部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業部>



# 選良따라 二千里

楊 澈 在  
( 國 會 速 記 課 )

辛亥年 동짓달 초하루부터 스무날까지 백성의 기본법인 憲法과 國會法 및 國政監査法에 의거……

農漁民所得增大에 얼마큼 政府가 腐心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國會農林委國政監査班에 몸을 실고 壯途에 오르게 된 筆者, 실은 소속 위인들을 되시고 떠나는 國監補助員의 資格이 었다.

휘뿌연 紫煙으로 덮인 監査場에서 圓卓의 騎士를 방불케 하는 英國議會民主主義의 「심벌」 우리 위원님들의 근엄한 질책과 회유는「국민의 이름으로」란 명분하에 진정 우리 서민을 위한 충정이다 믿어 記筆에 더욱 의의를 다짐하는 우리였다.

이제 農漁民을 위한 政策的인 方向, 저간에 시행한 사업의 現況得失의 問答속에 數千, 數萬 어휘의 난무를 전부 꿰매어 귀담아야 하는 벅차고 힘겨운 激務는 바야흐로 2千里를 누비며 활발히 펼쳐졌다.

## 1. 零時의 自由 俗離

俗離의 보름은 유난히 밝고 선명하다. 밀림의 틈바귀에 새들어오는 햇살처럼 달

빛은 老松 침엽수의 자락에서 나부끼고 있다.

이곳 忠北의 온후한 地勢와 民心은 他道の 선망인 24시간 확보할 수가 있는 權利를 가지고 通行禁止없는 自由를 누리며 면서 別無事故라는 治安統計를 자랑하고 있다.

여기 大地를 散策하는 심정은 24시의 규제와 질서를 일삼는 서울이란 속박(?)에서 벗어나 이 0時의 自由를 만끽하려는 과욕에서 비롯되었음에 틀림없다.

긴장된 國監수행에서 오는 약간의 피로에도 不拘 청초한 美人의 맵시에 달뜬 소년처럼 부풀어 俗離의 달과 지새는, 그래서 忠北은 俗離의 달가듯 하는 나그네에게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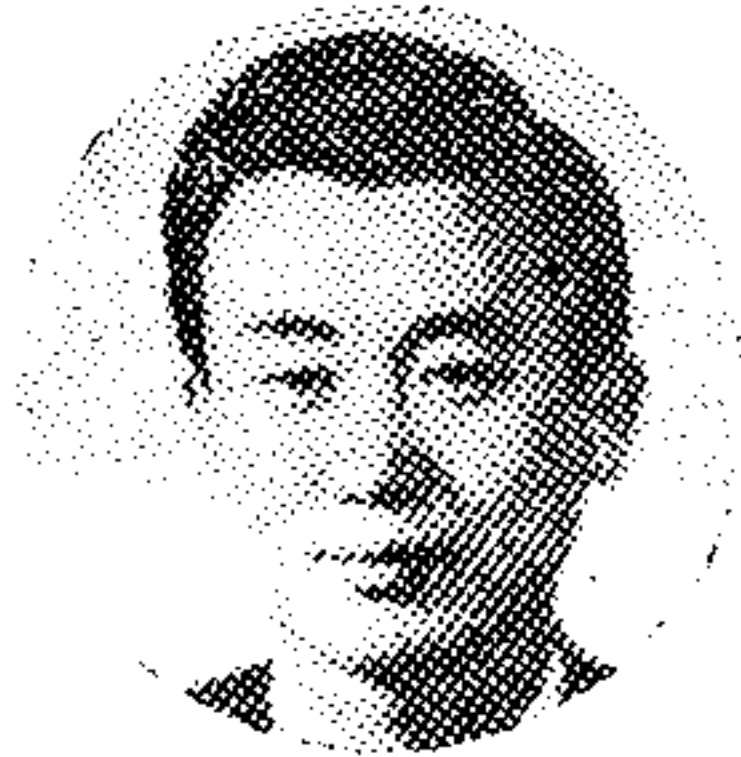
하나의 自由를 안겨주었다.

## 2. 10시와 10시의 邂逅

간밤의 감흥과 도취는 흥삼인양 싸늘하게 말라버린 나뭇가지였다.

오전 10시 監査開始, 오후 10시 監査終了 長長 12時間의 강행군 監査로 파뿌리 같이 늘어진 우리들,

과중한 業務量으로 일어날 기력을 잃은



채 을씨년스럽게 흩어져 버린 監査場을 目賭한다.

준절히 꾸짖는 選良들의 發言이 甞전에 서 계속 맴돌고 監査받는 높은 분들의 실 날같은 細聲을 잡으려고 청각이 아직도 예민하게 作用하고 있다.

조용히 눈을 감는다.

모든 감각기관의 원상회복을 꾀하려는 「요가」가 잠시 계속된다.

찰라를 휘어잡는 우리 速記人들 모두가 경험하는 이 신경소모로 인한 건강관리상의 문제점.

정부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식의 수입. 그리고 史記의 명예로운 記錄者라는 強點 밑에 도사리고 있는 激務로 인한 지나친 疲勞란 毒素에 대해서는 이는 확실히 科學的인 人力監査에 따라 人力再調整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思料된다. 우리의 近代化를 위하여 모든 諸般條件以上の 「에너지」 投入, 民族資本의 빈약으로 인한 政府財政形便을 勸案하더라도 우리의 精神力損耗는 사람이 설 수 있는 限界를 느끼게 할 程度라는 심각한 點을 실토해 두는 바이다.

### 3 웅숭한 缺禮

某月 某日 某監査에서의 일이다. 委員들을 위한 집기나 펫말이 國會常任委員會의 명패나 기타보다도 고급인 「프라스틱」으로 양구성 있게 그리고 고급가구로 치장한 監査場內의 호사스러움에 監査班의 빈축을 샀던 곳에서 — 중앙부처 수행원들의 列席을 전문위원급列席으로 과감히 配慮하고 가장 잘 들리는 위치에서 國監即 議政의 記錄을 擔當할 우리 速記席은

거의 청취불능지에 낙착시켜 버린 피감사측 儀典에 아연해 버린 우리.

불야 불야 좌석을 재배정하고 임무를 별고없이 넘기고 나서 이것이 故意냐 우연이냐로 입씨름,

—어보시요, 우리도 인간이예요.—

### 4. 協調라는 것

監査體와 被監査體

議會와 政府, 農林委監査班과 被監機關, 行政室과 速記士와 中央部署連絡官, 무슨 妙한 名詞의 羅列같지만 이들이 한결같이 유기적인 연결과 뉴대하에 스케줄 儀典, 連絡, 記錄이 분주히, 정확히 짜여지고 下達되고 確認되지 않으면 움직이는 國政監査活動에 지장을 가져온다.

특히 요번처럼 中央의 政策이 저 農漁村 구석 구석까지 골고루 심어졌나를 살피는데 主眼을 두었던 地方監査는 現地監査로서, 不時에 암행어사식 監査를 몇번 시도한 만큼 監査補助에 더 한층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실로 진지하고 성의 있게 국민을 위하여 무엇인가 캐보고 시정하여야겠다는 監査班의 열의에 일개 소시민으로서 감명이 깊었다.

더우기 피감사기관장의 발언은 가장 중요한 核을 이룬다. 우리는 그의 責任있고 현명한 施策에 귀 기울이고 그의 實踐力을 바라보고 있는 國民의 立場도 있다.

가답에 더하여 우리는 記錄에 임하면서 한자 한 귀절에 세심한 주의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被監機關의 實務職員으로서 가장 곤란을 느끼는 것이 諸委員들의 資料要求인 모양每分300字以上の 發言으로 要求

하는 資料分을 모조리 받아쓰기가 난감했는지 速記士들에게 協調를 要請하는 事例가 많았다. 모처럼 휴식을 취하려는 우리들의 주위에서 떠나지 않는 그들에게 資料要求分을 알려주고 서로 웃음을 나누면서 담소하는 경우는 보람있고 흐뭇한 기분 이어서 피로를 이내 잊을수 있었지만 가끔 「알고 났으니 언제보았더냐」는식의 차가운 모면의식에서는 무언가 쾌쾌한 내용이 들썩 풍겨 못내 지쳐버렸다.

도대체 복선이라고 하는 소위 체, 적하는 병폐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 믿고 이해하는데는 不和나 非協調란 있을 수 없으리라. 진실로 非協調로 因한 非能率이 우리 近代化作業에 얼마만한 영향을 끼치겠는가.

### 5. 바란다는 올린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자는 소망이고 요구요. 후자는 이에 대한 응답의 표현이다. 監查過程에서 語形別로 본 分類라면 여러 가지겠지만 以上の 語體로 집약해 본다. 항상 바라는 것은 국민편이요, 바람에 대한 결과를 올리는 것은 국민의 봉사자인 政府側이다. 두 文章에서 우리는 자못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국민편                      국민봉사자

① 바란다는            — 올립니다.

② 바랍니다        — 올린다

③ 바라옵시다 — 올리옵시다

지금 세계의 語形中에서 먼저 ①形은 국민의 權力이 국민봉사자보다 우위라는 단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②形은 국민봉사자가 국민에게 고압적이라는 표현이겠고

③形은 兩側이 相立 호양협력하여 나가는 모습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이렇게 敬稱과 卑稱으로 나누어서 슬쩍 음미해 보더라도 第③形이 이상적인 유형이라고 판단이 간다.

그러면 현실은 어떤가

監查場. ①形이 포효하는 국민의 代辯者로 확산 꾀이기는 하다. 그런데 제반 분위기 소리는 ②形으로만 들리는 착각에 고갤 기웃하게 된다.

요번 우리 國會는 균형국회라고들 한다 여야의석이 처음으로 均配되었다는 말일 게다. 이제 우리는 議政의 靑年期를 맞는 政治安定期의 思慮있는 몸가짐을 가질 때가 온듯싶다. 흥분과 열기어린 미숙은 지나고 조용히 우리가 잘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직시할 때인가 보다. 차제에 우리가 또한 바라는 바는 第③形의 이상적인 방향으로 키를잡을 때가 아닐까 싶다.

### 6. 速記士와 타이피스트

英國 Hansard staff(速記錄擔當者)나 美國議會의 速記業務가 애초에 速記士와 typist의 協業으로 이루어진 고도의 능률 체이었듯이 필자亦 監查日程을 마침과 동시에 翻文(속기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끝내라는 高位 관리자의 下命을 拜受한바 있는 지라, 번문의 신속을 위하여 妙案을 찾다가 以上の 方法을 採擇키로 하였다. 그런데 실체는 예상을 넘은 수확(?)을 거두었기에 한가지 농림 본부에서 일어난 사연을 적어볼까 한다. 감사기간 동안 거의 번문의 type 化를 피해온 우리 감사속기반 일행은 當該本部에 와서도 예의 행정실과 연락관을 통하여 協調를 요청, 美人一色의 typist 5,6명이 특별히 마



련된 속기사 집무실, 실은 次官補室로 急派되었다. 조용하고 눈치있고 정돈된 그리고 저기 중앙청이, 세종로의 全景이 굽어보이는 집무실이 갑자기 술렁이더니 벼란간 아미규환의 수라장(?)으로 화해 버렸다. 마치 Band Man 들의 연습실처럼 5,6대의 각기 다른 「타이프라이터」소리, 音色과 강조가 서로 엇바뀌는 速記士들의 速記原文 읽는 소리, 사이 사이 反問하는 typist 아가씨들 「쏘프라노」의 金屬聲. 소음 소음, 소음속에서 더 크고 우람하게 지껄여야 typist의 귀에 들리겠기로 소리는 驟然을 낳고 驟然은 驟亂을 낳고…….

速記士가 會議內容을 速記로 적어와서 천천히 읽어주면 typist가 한글화하는 作業의 寸景인 것이다. 슬그머니 문을 밀고 들어다 본 某課長, 질겁을 하며 曰「速記執務가 이렇게 驟亂스런 業務인 줄 몰랐다」고.

의외로 農林本部 typist들은 한결같이 그 實力이 分當 200字内外를 打字하는 기량을 갖춘 才媛들이었다. 그들의 언뜻 봐지 않을듯 난타하는 손여물의 후광을 업고 우리는 더욱 완벽하고 신속한 速記原稿를 作成하여 감사반의 原稿 및 要請에 즉응하여 議事處理에 쾌속을 보았다.

速記士와 typist의 協業은 才氣와 슬기 노련과 숙련의 調和로 보아 지나친 표현 일지 두려운 마음이지만 여하튼 type에 의한 번문은 여러가지로 새로운 결과를 나타내 주었다.

먼저 앞에서 얘기대로 말은 속기로, 번문은 타자로 分業化한 과정에서 서로 協力없이는 完成될 수 없는 관계를 이루면서 번문의 신속을 가져왔다. 따라서 速記

士의 과중한 업무량을 덜을 수 있었으며 장시간의 업무에도 전처럼 피로가 덜었다 자세한 Data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typist의 피로는 과중한 것이었으며 번문의 신속이란 速記士의 정확하고 끊임없는 낭독실력과 typist의 速打 특히 文章力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점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번문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음을 막을 방도를 우선 강구해야 했고…… 어쨌든 앞으로 연구과제로 두고 불만한 수확이라고 여겨진다.

## 7. 당만은 쌍두마차를 타고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한다는 選良들. 選舉區民들과는 더욱 그러한 그분들이—— 우리 補助員들에게는 유리된 어떤 거리감을 느끼게 하면서 公的인 上下의 단조로운 응대와 遠慕의 固形的인 公경만이 지속되어 오던 때——.

어느날, 監査班一行이 「버스」에 몸을 기대고 가던 날, 부슬비가 차창을 적시고 들성들성 솟은 山은 옛 고향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原始와 高速道路의 調和美를 감상하는 곁에 잔잔히 흐르는 某委員의 시조가락은 강행군 감사에 시달려온 우리 일행의 어둠을 말끔히 씻어 주며 야릇한 낭만마저 스며들게 한다. 永郎의 식귀가 낭랑히 울리는가 하면 어떤 serenade가 우리를 로맨틱한 회상에 젖게도 한다. 監査班 全員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녹이며 화기 그윽한 대화를 나눈다. 모든 직함과 근엄을 벗고 너와 나의 질푸른 청년들이었다.

이녁도 다음 일을 돕기위해 지나간 질의응답의 간명한 요지를 발췌하면서 누군가 읊조리는 식귀를 흘릴 수 없어 여가

부기하련다.

理想은 꽃다발 가득 실은, 쌍두마차  
였읍니다.

現實은 갈기 갈기 찢어진, 장송의 일  
이였읍니다.

靑春은 이 두 바위틈에 난 고민의 싹  
이였읍니다.

## 8. 국민의 公器

言論은 社會를 비치는 거울로 배웠다.  
미화되거나 과장없이 사회의 美醜를 歪曲  
됨이 없이 드러 내주는 거울이란 말일게  
다. 그러니까 어떤 각색이나 구김없이 국  
민에게 알려 줌으로써 일반의 판단과 원  
칙적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뜻도 포함되  
었으리라.

이번에 필자가 監査 수행을 하면서 읽  
어본 國監에 관한 신문의 기사 方向에 대  
하여 약간의 의견을 얘기하고 싶다. 무엇  
이냐 하면 監査委員들의 질의기사는 비교  
적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당해 기관장들의  
답변기사는 대부분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  
이다.

美國의 公判調查記錄엔 질문이 없다.  
答辯뿐이다. 被告를 잘 못 유도할 염려에  
서 또는 被告의 權利를 損傷시킬 우려에  
서 질문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勿論 以上の 例擧가 被機關長의 證言기  
사화와 비유될 수는 없겠지만 被告와 證  
人의 答辯 하나하나가 被告 자신에게 미  
치는 영향이 큰 것처럼 그 지방을 다스리  
는 책임자가 證人으로써 答辯을 할 때 그  
한자 한귀의 證言은 그 기관장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할  
것인가.

신문이여 國民의 公器로서 그 最大公約  
數는?

## 9. 耽羅의 Sky Lounge

西歸浦의 초저울 밤바다는 낭만이 아니  
었다. 유달리 이날따라 일렁이는 파도는  
海邊을, 아니 耽羅를 뿔아 白頭山 저건너  
만주벌에 내 던질 것만 같은 집념에 사로  
잡힌다. 滿州에 浮上한 耽羅를 교두보로  
하여 옛 우리 高句麗를 되찾아 기리 후손  
의 안녕을 이룩하자는...

바람과 파도에 말려 버릴것 같은 海岸  
을 따라 발길을 내디디며 뼈에 부딪는 상  
념의 薰花를 췌 본다. 시커멓게 몽게몽게  
괴었다 가라앉는 저 거대한 泡沫의 힘, 기  
개, 정녕 바다는 꿈과 용기의 產室인가  
보다.

퍼뜩 망념과 사념을 저 피어오르는 怪  
燾에 던져버리고 지나간 며칠간으로 다시  
돌아온다.

農民을 위하여 정신자세를 부르짖는 某  
委員의 余韻이 내주위에 깔리면서 독수리  
부엉이, 까마귀의 무리들, 殺意와 貪慾으  
로 범벅된 기결찬 邪慾들이 꼬리를 감추  
는날 우리들의 정신자세는 확립될 것이란  
생각에 웃기를 여민다.

방황에 지치다 24時의 문을 두드린다.  
맥맥히 「베트벤」의 「運命」이 장중하게 室  
內를 메우는 아담한 西歸浦의 茶室「본전」  
이란 곳. 국가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전에 내가 국가를 위하  
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현대  
의 「잇슈」를 반추하며 오늘을 맺는다.

地下 300

宋 基 喆

(國會速記課)

百聞이 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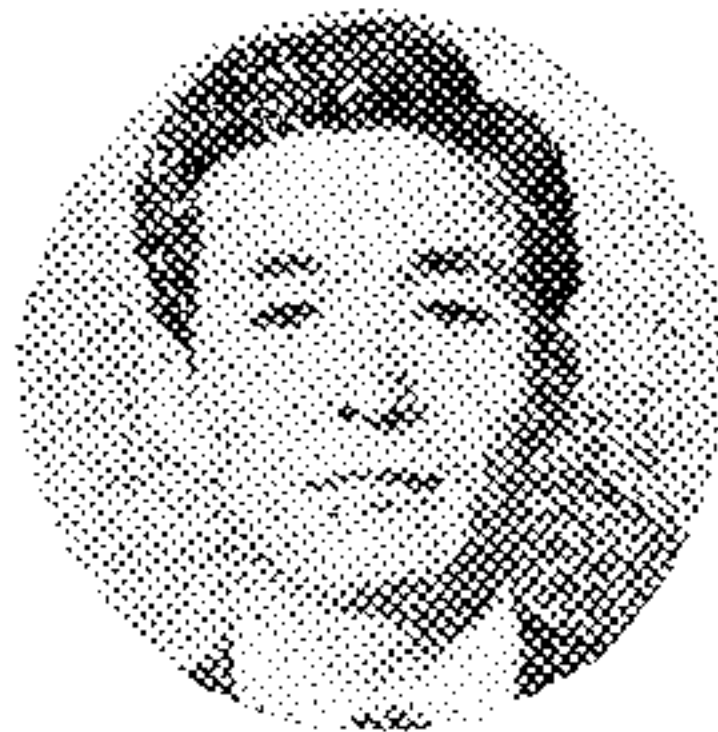
나로서는 난생 처음으로 國監商工委 隨行 덕분에 가보는 광산촌이다. 평소에 그림이나 글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상상해 오던 광산촌. 西歐의 광부들이 그 男性을 터뜨릴 길 없어 坑 穴에 만취해 주먹을 휘둘러대며 주정부리는 그런 통나무로 엮어 만든 선술집이 있는 낭만의 곳이 아니더라도 長省은 우리나라 제일의 탄광이요 옛날에는 강원도 포수라는 속어가 나온만큼 심심 산골이라 산천은 웅장하고 초목은 아름다운 대자연 환경 속에서 내일을 향해 오늘에 생명을 걸고 피땀을 흘리며 의리와 인정으로 뭉쳐 사는 패기에 찬 광부들의 모습을 그리며 차창밖을 열심히 내다 보고 있었는데 막상 탄광이 가까워지면서 나의 진지한 사고는 헝클어지기 시작했다

우선 자연부더가 상상과는 판판이었다.

자동차가 터덜거리고 뽀얀 먼지를 일으키는 오솔길 같은 신작로는 그런대로 산골의 냄새를 풍겨서 좋았으나 그렇게 웅장하지도 못한 僻 僻하게 생긴 늦 가을에 접어든 산은 역시 다른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험박었고, 한가지 기이한 현상은 메

마른 개울에 맑고 투명한 시냇물이 아닌 먹물같은 석탄물이 청계천 물처럼 산골짜기를 흘러 내려가고 있는 풍경이었다.

드디어 광산촌에 도착하니 피피피한 옷차림에 누란 코를 빼어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삼양동 골목길만한 Mainstreet 양쪽으로 성냥갑처럼 다닥다닥 늘어 붙은 판자집들 도시의 빈민들이 모여 사는 스템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광경이다. 그 판자집 지붕 위에는 암회색의 석탄가루가 수북히들 쌓여있어 마치 여기는 하늘에서 암회색 눈이 내려서 절반쯤 녹아내린 북수지대 같은 무질서와 불결을 연상케 한다. 탄가루가 날려서 집밖에다 빨래를 말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작막한 풍경에 가슴이 저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장성탄광 먼저 굉장한 규모에 놀란다 매장량 1억 4,000만톤 연평균 채광량 2,200만톤 향도의 길이 약 100,000m 향도의 1년 유지비가 7억 9000만원, 거기에 종사원이 5,700명, 1가족 5인으로 계산해서 28,500명이 이 탄광에 매달려 먹고 살고 있다.



석탄 캐내는 굴속을 시찰하는데 몇사람은 행여 무슨 사고라도 날까봐 기피했지만 나는 따라붙을 기회를 얻었다.

누구든지 굴속을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저절로 애국심이 우러나온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과 궁금증을 안고 따라 들어갔다.

맨먼저 탈의실에서 옷부터 갈아입는다. 탈의실에 가니 5,6m 높이의 천정에 2000여벌되는 옷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이것은 광부들이 입고 온 옷을 작업복과 바꾸어 입고 매달아 놓은 것이라고 한다.

채탄할때 입는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헬멧」 앞에는 Cap lamp를 달고 허리에 가축띠에 달린 도시락만한 전전지를 차고 장화를 신고 장갑을 끼고 거울을 보니 광부차림이 틀림없다.

그리고는 아치형으로 된 기차 「턴벨」의 반만한 크기의 입구로 유개화물열차처럼 생긴 蓄電車를 타고 「레일」이 깔린 캄캄한 굴속을 시속 10km의 속도로 10분쯤 가면 사방으로 굴이 뿔린 넓은 광장이 나온다. 여기서 수직 상향으로 CAGE(기재를 운반하는 지하 엘리베이터)를 타고 얼마쯤 올라가면 장충체육관 절반만한 광장이 나온다. 이곳은 순전히 바위를 깎아낸 곳으로 극장안 만큼 높은 천정도 벽도 전부 바위 그대로이기 때문에 기둥도 천정 받침도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다 이 거대한 광산을 움직이는 중요한 기계를 설치해 놓았고 직경 5m 정도의 「로라」가 「풀·스피드」로 돌고 있었다.

여기서 다시 처음의 광장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SKIP(석탄을 운반하는 지하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 원하는 순간 잠깐 내려갔는데 275m의 땅속이라고 한다. 이 SKIP는 초속 7m의 속도로 20톤의

짐이 실리면 자동적으로 오르내린다고 한다.

275m를 수직으로 들어간 땅속은 무거운 땅 덩어리의 중압으로 금방 질식할것 같은 생각이지만 공기압축기로 불어 넣어 주는 바람은 오히려 서늘한 감마저 든다. 여기서부터는 전기기관차(지하 소형전차)를 타고 수평으로 3km를 들어간다.

여기도 4방 8방으로 굴은 뿔러있고 굴속은 바위를 파낸곳 혹은 석탄을 파낸뒤의 새까만 공간을 무너지지 않도록 활처럼 흰 철로 받쳤거나 통나무를 사다리꼴로 받쳐 놓았거나 한데, 높이 3m 넓이 3m 정도의 좁은 공간으로 되어있고 「레일」이 깔린 양옆으로는 압축공기를 넣어 주는 airPiPe와 굴속에 흐르는 물을 뽑아내는 수도 PiPe가 놓여있고 천정에는 애기 손가락 만큼 굵은 구리쇠 고압선이 cap lamp에 비치어 번쩍이고 있기 때문에 감전사 할까 보아 모두 키를 낮추었지만 그중에도 키가 큰 모의원은 거의 업드리다시피 하고 권위의식과 위엄은 간곳 없이 어쩔수 없는 인간의 생존본능 앞에 절절대는 모습은 매우 「코믹」한 장면이기도 했다.

습기찬 통나무 끝에는 오랜 세월을 자랐을듯 싶은 백색 혹은 분홍색의 어른 머리만한 크기의 곰팡이가 마치 아름다운 지옥의 꽃모양 선명히 탐스럽게 피어있고 「레일」이 두갈래로 갈라지는 곳마다 기차 정거장처럼 조그만한 광장이 있는가 하면 도중에 옆으로 갈라져 나간 작은 굴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 땅속은 탄을 운반하거나 캐내는 굴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다고 한다.

얼마동안 덜커덕거리고 달리던 전기기

관차를 축전차로 갈아타고 같은 형태의 굴을 고압선의 위험이 없는 편한 자세로 한참 달리면 드디어 종착점, 여기서 부터는 도보로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하나가 겨우 통과할 만한 좁은 굴을 사다리를 타고 40m쯤 내려가면 드디어 석탄을 캐내는 막장이다.

광부 두사람이 착암기를 가지고 피탄을 캐고 있었다.

머리위도 발밑도 앞 뒤도 좌우도 전부 cap lamp 불빛에 비쳐 번쩍거리는 새까만 피탄이다. 매캐한 냄새 뿌연먼지 air pipe에서 공기나오는 소리 착암기 터덜거리는 소리 몸은 땀에 젖고 무더운 김이 온몸을 감싸는듯 숨막힐듯한 답답한 느낌인데, 온몸둥이를 까만 먹칠을 해놓은 것 같은 광부의 얼굴에는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흘러 내린 자국이 얼룩져 있고 총혈

된 눈으로는 그리 반갑지도 않은 불청객을 맞이한듯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모를 표정으로 우리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지하 300m 굴속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의 임금으로는 5인가족의 생계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이처럼 힘든 노동에는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수불가결 하지만 그것은 먼 훗날의 얘기로 들릴 뿐이란다.

인간의 삶은 수없이 여러가지 형태이고 그리고 무한정 끈질기다는 것을 나는 새삼 생각하게 된다.

이 세상은 열심히 정직하게 땀 흘리고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철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부조리를 통감하면서 나는 분노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었다.

百聞이 不如一見이라고 했다지, 와서 보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 女 僧

宋 惠 卿

아침 수풀에  
다람쥐 넘나들고  
산새도 다시 찾아와  
지저귄 때  
당신의 꿈은 마냥  
조용하기만 한 그늘,  
  
향불 말없이 타오르는 법당  
예불에 마음쓰고  
앉으신 당신

속세는 불꽃처럼  
타는 속에서  
그레도 당신은  
웬지 서러운 그늘만 같은  
  
산은 속리산 절간  
향내음 속에  
연꽃같은 젊음이  
눈물겨운 한평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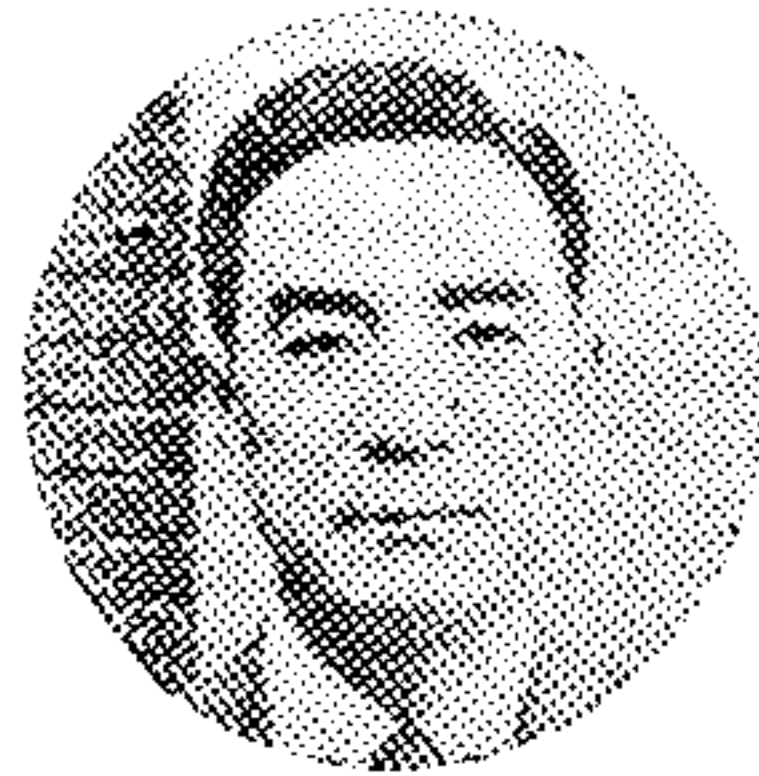
# 閑 談 客 談

李 東 一

( 國會速記 第2 係長 )

## 除夕有感

삭풍에 낙엽은 지고 앙상한 나무가지에 한장의 잎이 매달려 있듯 벽에 걸린 「카렌다」의 마지막장이 먼지에 그 울린채 서글퍼만 보이는 이 맘때가 되면 해마다 지나쳐 버린 한해를 決算해 보는 언재부턴가 비릇된 내 버릇이 어김없이 고개를 쳐든다.



除夕에는 또 내게 속았다는 엷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어느듯 스스로에게 또다시 새해의 커다란 꿈을 그리며 새해에는 기필코 自身에게 충실할 것을 다짐함은 人間의

간사함 때문일까?

누군가가 말했듯이 속아사는게 人生이라는 處方箋에 가냘픈 위안을 느끼며…… 꿈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한해를 보내는 고깃길에 서서는 지나간 한해가 부셔져 버린 波紋처럼 가슴을 메이게도 한다.

현실에 만족할수 없고 현실이 너무나도 자기의 능력범위내에서는 멀기만 할때 흔히 사람들은 꿈을 부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게 아닐까?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흐뭇한 마음보다는 悔悟의 情과 스스로에 背信당한 痛며름함을 맛보게 된다.

꿈의 세계에는 누구의 간섭도 없는 것 한껏 꿈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더욱 꿈을 소중하게 여기며 남몰래 가꾸어 가나보다.

무엇을 했던가 하는 허탈한 심경을 달랠길 없을때는 안주도 없는 술잔이나마 기울이고 싶다.

올해의 除夕에는 어떤 꿈의 나래를 펼치고 날아 볼까!

벌써 數없이 되풀이 해 온 감정!

이때가 되면 지난 한해의 크고 작은 갖가지 일들이 腦裡를 스쳐가며 즐거웠던 일들에는 엷은 웃음이, 언짢았던 일들에는 눈살을 찌프리며 그리고 저지른 잘못에는 反省의 機會로 삼으며 새해의 부푼 設計에 밤잠을 잇곤 하였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 다시 세상살이가 어려워 지고 그 속에서 이리 저리 엷히다 보면 훌적 한해가 지나가 버릴것을——

지나온 나날이 늘 반복되어 온 일로서

그리고 또다시 오는 除夕에는 悔恨만을 되씹어야만 할텐데……



## 피아노·렛슨

어느새 붙여진 이름인지 課內 몇몇 동료들 사이에 「피아노·렛슨」이라는 모임이 생겨났다.

언제 누가 創始했으며 무엇을 하는 모임인가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昨醉未醒의 몽롱한 눈에 설친 아침으로 허기진 胃臟은 不快指數를 더 해가기만 하고

그러한 피곤한 心身을 달래기나하듯 퇴근 즉시 직행이라는 굳은 결심을 하나 시계 바늘이 네시를 가리킬 지음 주위에서 「피아노」의 「피」자소리만 나와도 귀가 번쩍 뜨이고 어느새 입가에는 얇은 미소가 번지고 발길은 어느새 作黨하여 「피아노」 敎習所로 달린다.

弱한 者여! 그대 이름은?

뜨물같이 희뿌연 忘却이라는 이름의 물이 담긴 술잔이 오가고 짙은 粉내음이 풍기는 「피아노」의 鍵盤을 두드릴때 우리 醉漢의 醉興은 絶頂에 達한다.

언달아 안적오는 그 술한 술잔 술잔들을 處理하는 그 氣分!

그것은 정녕 無花果의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알수있지 말로서 표현할수 없다는 그것과 다를바 없으리라.

그런때는 잘시나마 自身을 잊는게 本意 아니나마 사실이다.

술이 사람을 마시고 「렛슨」이 끝나면 혼미한 눈앞에 의태의 찾아오는 비곤한 손바닥——

「선생님——」

「아차! 집에 있는 糟糠之妻는 5원씩 떨어던데……」

에라! 눈이나 감자

어느결에 南大門 한장을 뽑아 든 내 손은 떨리기만 하고——

아! 왜 몰랐던고

女人은 누구나 등불 아래서 더구나 醉客의 瞳孔에는 「크레오파트라」와 같이 요염하게 비치는 것을——

## 뜻내기 哲學

무엇이던 필요 이상의 욕심이 사람들을 곤경에 몰아넣게도 한다.

현재의 자기분수 자기처지 자기위치 자기의 생활에서 飛躍을 꿈꾸고 거기에서 더 한걸음 나아가려는 욕심.

그것은 어찌면 赤裸裸한 人間의 본능이라고도 하겠다.

추억과 동경속에 섞여지는 우리들의 생활을 윤택하고 더욱 意義있게 만들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거짓없는 욕망일 게다.

그러나 우리의 그 허황한 속된 욕심을 오래오래 두고보면 적당하게 알맞게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편한가를 알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기란 참으로 어렵다는데에 人間으로서의 人間다운 弱點이 있는게 아닐까?

사람들은 일이 벌어졌을때 일수록 침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일이 벌어진 다음 뉘우치기에 앞서서 자기로서의 분수 처지를 생각해 본다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자기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자기의 눈에 눈물을 자극했을때 그것을 억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어려운 고비에서 한번쯤 自制하고 忍耐한다는 것은 얼마나 聖者답겠는가!

× × ×

# 最高會議 速記士

崔 光 錫

(國會外務委員會)

내가 速記를 배우게 된 것은 1959年 大學을 卒業, 入隊, 陸軍副官學校 速班記에서 教育을 받은 것이 最初의 契機였다. 當時 序列이 5等 內에 들면 希望地로 보내 주었는데 다행히 나도 圈內에 들어 서울로 希望, 6管區司令部 法務部 檢察課를 거쳐 憲兵司令部情報部, 國防部 本部등을 轉轉하다가 5.16革命과 동시에 最高會議에 定着하게 됐다.

最高會議가 구성되기 前 軍事革命委員會當時의 速記士 現況을 보면 陸軍本部參謀總長室에 勤務하던 黃善明(逸波式·現農協 中央會勤務) 兵長이 會議錄作成業務를 擔當하고 있었는데 業務輻輳로 도저히 감당키 어려워 陸軍副官學校 速記班敎官이며 同校筆耕敎官으로 있던 申彦植中尉가 차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最高會議로 名稱이 개칭되면서 國防部에 있던 내가 1961년 5월 25일 (當時兵長) 차출되어 옴으로서 3명으로 補強된 셈이다

그러나 「마라톤」 會議를 하는 관국에 3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業務量



으로 다시 그 當時 國防部의 李炳雲 (高麗式)·崔次吉(高麗式)·中士와 軍事停戰委員會에 근무하던 朴大赫 (高麗式)·陸軍本部 특전감실에 근무하던 李宗燮(高麗式兵

長이 最高會議로 轉入되어 7명으로 再補強이 됨으로서 약간 生氣를 찾았다 하지만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連日 계속되는 會議로 한번 會議에 들어가면 3,4 時間後 交代를 하던 當時의 隘路點은 이루 形言 할수없다. 또 速記에 대한 認識不足으로 무조건 쓰기만 하면 原稿가 나오는 줄 알고 끝나자 마차 原稿督促을 받은 적이 부지기수 였는데, 世上에 알려지지 않았던 過去의 速記에 대한 認識에 비해 10년이 지난 오늘날의 速記의 認識度는 자못 높아졌다고 볼수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 非常措置法 立案過程에 參與했을 때의 무거운 責任感은 自負心과 같이 지금도 잊을수 없다. 革命初期라 모두들 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1言 1句에 온 신경을 쏟지 않을 수 없었다.

當時常任委員會會議室은 지금의 運營委員會會議室로 그 周邊을 공수단 隊員들

이警戒를 森嚴히 했기 때문에 最高委員 外에는 速記士만이 出入할수 있었던 때라 國家再建最高會議에 勤務하며 革命課業 遂行의 一翼을 擔當하고 있다는 自負心이 내부에 作用했었던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었다.

지금도 잊혀질수 없는 일들은 憲法改正 審議委員會에서 公聽會를 열때 速記士들이 二人一組로 分擔해서 各道別로 出張 나갔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業務量이 輻輳했었던 것과 速記錄이 製本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民·參會議錄 保管倉庫에서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순서대로 정리하던 일은 기억에 새롭다.

그후 1961년 8월 本人과 朴大赫, 李炳雲 兵長은 除隊를 해서 민간인으로 계속 勤務를 하였으며 1963년 11월 申彦植中尉가 민간인으로 除隊 係長으로 就任하였고

새로 7名이 더 補強되어 한숨 놓게 되었다.

여러가지 어려운 逆境을 딛고 議政史의 그늘에서 일을 해오던 속기직을 물러 난 지도 어느덧 여러 星霜을 거뒀다. 國政 監査를 갔을때 같은 여관방에서 같이 지 내기도 했던 當時 문교사회위원장이나 當時 운영위원장이 요즘 公式석상에서 가끔 만나면 잊지않고 반갑게 대해 줄때 아련한 기억속을 더듬어 感懷에 젖는다.

現在는 속기직에서 물러나 있지만 속기 同好人들에게 감히 부락드리고 싶은 말은 速記라는 特技의 行政業務에 矜持를 가지고 國政을 記錄하는 史家로서 사명감을 느끼고 自負心을 가지고 일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보다 「프로페셔널」한 權威의식을 잃지 말고 꾸준히 精進하는 데에서 보다 速記人들의 權益이 守護될 것으로 알며 이만 끝을 맺는다.

## 用 語 集 (第1回)

註： 이 欄은 國會 速記實務上 자주 튀어나오는 特殊用語를 한데 모아 會員의 參考에 供하고자 하는바 會員여러분의 隨時 投稿를 바랍니다.

POST BIETNAM (越南戰後平靜)

IECOK (國際韓國借款國會議)

ASEAN (東南亞國家聯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喬冠華 중공의 부외상겸 유엔대표단장

EOC (Korea-U.S.)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韓美 경제협조위원회)

뉴·레프트

뽀뽀로事件 1952년 일본 동경대학에서 사법경찰이 학원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구타당한사건.

Marginal man 기업과 노조의 경우

와같이 서로 가치체계를 달리하는 집단에 동시에 소속하는 결과 어떤 쪽 가치체계에 따라 행동할것 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오늘날 한국의 대학 교수는 당국과 학생 사이에 끼어 있는 Marginal man 이라고 말한 어느 교수의 말을 金鍾泌 國무총리가 인용했음.

제임스·레스턴 미국의 언론인, NYT의 부사장.

SDR 세계은행의 特別引出權

제인스 年鑑 무기에 관해 권위있는 영국의 전문지.



# 郵 票 散 考

朴 順 必

( 國 會 速 記 課 )

우표는 원래 편지를 송달하는데 지불되는 세금의 영수증으로 그 가치도 우표가 인쇄된 종이쪽지만큼의 값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오늘날의 우표는 국가의 자랑을 전달하는 수단이며 국제적인 문체에 직결되는 경제적 요소이고 광범위하게 발달되는 교역의 대상이며 수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흥미다. 한결음 더 나아가 우표는 왕의 스포츠로 승격되기도 했다.

(「R·러트」著「풍류한국」中에서)

오늘의 세계는 인간에게 選擇의 고민을 안겨다 주고 있다.

급변하는 문화적 현실을 놓고 볼 때 選擇요인의 풍부화 다양화는 현대인을 선택의 십자로에서 방황케 하고 있다.

숨막힐듯한 현대 문명의 조류 속에서 물질생활에만 급급했던 현대인은 또 하나의 정신적인 빈곤으로 허덕이고 있고 고도화 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그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인간의 정신력은 현대인을 생각하는 갈대에서 감각하는 갈대로 전락시키고 있다.

오늘날 우표 수집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우리를 존시도 쉬게 하지 않는다.

즉 그들의 우표수집에 대한 인식은 불행히도 수집가들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그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우표수집의 취미를 상행위의 일종으로 보거나 아동들이 즐기는 유치한 취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중학교때 형으로부터 물려받은 몇 장의 우표를 자본으로 10년 가까이 우표를 모아 오면서 흔히 친구들이나 주위의 사람들로 부터 왜 우표를 모으냐? 하는 질문을 많이 들어 왔다.

이러한 질문은 우표를 수집하는 동안에 수없이 들곤 하지만「왜?」라는 말에 묻는 사람에게 시원스럽게 답 할 수 있는 재치가 나에게겐 없었다.

요즈음도 갖가지 취미 활동의 하나로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 졌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산은 왜 올라가느냐?」 하는 질문에 「산이 거기 있으니까」라는 대답이 있다.

이것은 우표 수집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우표가 나와 있으니까 라고 하지만

이 대답은 우리에게 무언가 석연치 않은 감을 주므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취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모은다는 것은 인간의 깊은 본능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인간은 타고난 천성과 교양에 따라 천만별의 개성이 있듯이 수집품에도 병화, 조각품, 화폐, 인형, 성냥갑, 담배갑, 라이터 등 수집대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여자의 속옷을 모으는 좀 사디스틱한 것, 벡타이나 자동차 수집같은 호화판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표수집은 세계적이어서 King of hobbies, hobby of King(취미중의 왕이며 왕들의 취미)라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로 우표수집은 모든 지식을 동원하기 때문에 현대인의 취미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모으고 있는 분들에게 왜 우표를 모으냐고 하면 대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을 수 있다.

첫째, 아무 이유없이 무조건형

둘째, 우표는 최소의 면적에 표현된 최대의 예술이라는 예술지상형

셋째, 도안을 세밀히 보면 여러 방면의 지식이 논다는 근면형

네째, 각국간의 이해와 친선이 된다는 국제형

다섯째, 정돈과 관찰력을 기른다는 정서교육형

여섯째, 적은 비용으로 많은 오락이 된다는 경제형

일곱째, 모으면 저축이되고 가치도 오른다는 투자형

이외에도 여러가지 형이 있겠으나 우표수집은 예술과 같아 국경이 없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Boom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인종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구별없이 행해지고 있는 유일한 취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메마른 인간의 마음에 호뜻한 정신적 양식을 공급해 주며 지식을 길러주는 진정한 의미의 건전한 취미이다. 우표를 모으는 행위 자체가 시간의 낭비나 정신력의 소모가 결코 아니라, 관찰력을 길러주고, 情誼의 계발에 이바지하고, 적당한 휴식이 된다.

나는 특히 이러한 우표수집이 속기인들의 생활에 주는 득을 손꼽아 본다. 앞서 말했듯이 우표수집이 광범위한 지식을 동원하는 취미라는 점에서는 속기인들의 자질과도 아주 일치하지 않겠는가. 한쪽은 취미요, 한쪽은 직업라는 차이 뿐이다. 취미치고는 자못 實利的이요, 직업생활에 보탬이 된다.

원래 수집이란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 자체가 좋은 습성을 불이게 된다는 점에서 일단 권장해 볼 만한것 이라 하겠다. 고서적 수집을 통해서 옛 문화를 보는 눈을 기르며, 미술품 골동품들을 통한 격조높은 것에서 부터, 「콜렉터」의 주인공 처럼 나비수집, 혹은 식물채집 어느 것이나 그 방면에 一家見과 鑑識眼을 기르며 체계있는 사고력과 정리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표 속에 담겨있는 시대, 문화, 역사, 동물은 그 우표 자체의 美的 가치와 더불어 시대감각까지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이 가까이 해 볼만한 것 같다.

# 미스 김의 辯

金 仙 玉

(國會速記課)

○ 난 껌질을 금방 깨고 세상에 나온 병아리. 접두사를 붙여 흔히들 햇병아리라 이름한다.

전엔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참피로운 일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많은걸 생각해야 하고, 판단해야 하고, 마침내는 해결 해야만 하는 그 벽찬 과정이……

그것은 일종의 증세가 심한 도피증이 었는지도 모른다.

× ×

○ 사회인이며, 생활인이며, 공무원이며, 속기사라는 그 벽찬 이름을 한꺼번에 부여 받은 건, 어쩌면 너무 이른 출범인지도 모른다. 미쓰킴으로 불리우기 시작한 그것은 성장이 가져다준 변모일까.

처음 미쓰킴이란 부름을 받았을 때 지금껏 불리워오던 내 이름을 상실하는 듯한 허전함과 먼 이국의 낯선 외래어를 대하는 듯한 어색함에, 난 그만 짜증스러웠었다. 그것은 나에게 꽤 거리가 먼 생활일 줄 알았는데……

사회인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거침없이 붙여진 이름. 그것에 익숙치 못했던 며칠은 미쓰킴을 찾으려(특히 전화의 경우), 누구던가……? 생각하다간, 아차 바로 전데요…….

또 직원들의 호칭에 곤란해하던 내가 영접절에 아저씨라는 말이 튀어 나올것 같아, 아예 말하기를 꺼려했다면, 지나친 염려에서 빚어진 바보스러움일까…… 아무튼 미쓰 某란 단어는 성장한(?) 아가씨에게 붙여지는 근사한 3인칭이란걸 안전, 마치 인생을 조금더 산 선배같은 표정을 지으며, 기왕 생활인이 될바엔, 철저한 아주 철저한 생활인이 되어 보자고한 그네의 말이 아니더라도 또 백과사전을 뒤적이는 수고없이도, 알아야만하는 당연함에서 일까…….

○ 아직은 쓰디쓴(? 적어도 내겐)커피 한잔 보담은,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지만, 이젠, 좀더 성숙된 미쓰킴이 되어야겠고 세련된 생활인의 자세를 닮음해야겠고, 또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겠다.



# 社團法人大韓速記協會

## 資格審查 및 技能檢定規定

1969. 5. 1 制定

1971. 7. 8 改正

###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規定은 會員의 資格 審查 및 懲戒에 관한 事項과 速記士資格 檢定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章 資格審查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第2條 (構成) 資格審查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는 資格審查委員長 및 理事會에서 任命하는 8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第3條 (召集) 委員會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理事長이나 委員  $\frac{1}{3}$  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에 委員長은 지체없이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4條 (職務) 委員會에 幹事1名을 두어 委員會 會議錄作成 및 기타 委員會事務를 處理한다.

幹事는 委員中에서 互選하며 委員長有故時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5條 (會議) 委員會會議는 非公開를 原則으로 한다.

그러나 利害關係當事者는 參席할 수 있다.

第6條 (懲戒決議) 委員會는 資格審查 以外에 理事長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定

款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會員의 懲戒 事項을 審議決定하여 理事會에 報告한다  
第7條 (議決定足數) 委員會의 決定은 在籍委員  $\frac{2}{3}$  以上の 贊成으로 決議한다.

### 第3章 會員의 資格審查 및 懲戒

第8條 (會員資格) 國語 速記에 있어서 는 速記士 資格 2級 以上 또는 國家 公共團體의 速記職에 從事하는 者와 英語 速記에 있어서는 英語速記를 專業으로 하는 者로서 協會 所定の 義務를 受諾한 者를 正會員으로 한다. 그러나 會長은 이 條項의 規制를 받지 않는다 (71. 7. 8 改正)

第9條 (會員의 懲戒 및 除名) 會員相互間의 不信을 招來하거나 協會의 名譽를 損傷케 한者 또는 會費를 3月以上 納付하지 않은 者는 3月以上の 停權 또는 除名할 수 있다.

### 第4章 速記士資格檢定

第10條 (資格檢定の 目的) 速記의 社會的 役割을 充分히 하게 하기 위하여 基準을 定하고 그 기준에 相應하는 能力을 認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1條 (檢定基準) 1級 내지 8級으로 定하고 內容은 別表에 의한다.

第12條 (檢定方法) 檢定試驗은 實技試

驗을 原則으로 한다.

第13條 (公告) 試驗施行 20日前에 公告 하여 一般이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第14條 (試驗施行) 檢定試驗은 年 1回 以上 施行하여야 한다.

第15條 (資格決定) 各級에 있어서 合格者는 正確度 95% 이상인 者로 한다 但不合格者中 正確度 90% 이상인者는 應試級數의 次級으로 하며 8級은 90% 이상인 者로 한다.

第16條 (其他事項) 試驗施行에 必要한 其他事項은 細則으로 定한다.

附 則

第1條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第1回 臨時總會 當日 正會員으로서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서 5年이상 速記實務에 從事한 者는 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1級 資格證을 수여한다.

第2條 本規定은 1969年 6月 4日부터 施行한다.

別 表

國 語 速 記				英 語 速 記			
급수	속도(1분)	번문시간	정 확 도	급수	속도(1분)	번문시간	정 확 도
1	320자이상	15분이내	95점이상	1	250단어이상	15분이내	95점이상
2	300 "	"	"	2	200 "	"	"
3	270 "	"	"	3	180 "	"	"
4	240 "	"	"	4	150 "	"	"
5	200 "	"	"	5	120 "	"	"
6	180 "	"	"	6	100 "	"	"
7	150 "	"	"	7	80 "	"	"
8	120 "	"	90점이상	8	60 "	"	90점이상

# 編輯後記

- 상실이란 어휘보다는 창조란 말을 즐겨 쓰고 싶다고 외치면서도 또 한해의 시간을 상실하고 있다.  
여성에게 창조는 힘이 없다고 하던 그녀에게 공박을 하며 추운줄 모르고 거리블쫄다니던 그 때,  
벌써 세번째의 겨울을 맞았는데 그녀들은 지금 무얼할까……,  
창밖의 앙상한 나무가지들 바라보며 문득 상념에 잠겨본다.
- 쓸데 없는 잡상으로 방황하거나 권태에 빠진다는 것은 자멸을 초래할 뿐이라고……  
더욱 정신적인 편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이론으론 그렇게 현명한척 떠들어 대지만, 나 자신이 곧 잘 앙늬(ennui)의 상태에서 고민하기가 일쑤이다,  
늘 이맘때면 呪文처럼 외이는 말이지만 좀더 마음을 가다듬고 좀더 새롭게, 좀더 보람있게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 (仙)
- 원고를 차곡차곡 모아오는 동안에 이해는 저절로 온다. 창밖의 나무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고 차가운 바람이 거기에 감기우고 있다. 따스한 실내에서도 바깥의 추위는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다.  
기후만 차가워진게 아니라 이 책의 원고들을 하나씩 추려보는 사이에 변도 긴장감이 들고 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行動할까? 잠시 밀린 원고를 덮어두고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 너나없이 바쁘기만 해서 편집이 늦어졌으나…순조로왔다 모두 제 일에 쫓기다가 편집실에 또 일이 쌓여 있음을 잊을까 하기도. 허나 바쁜 고비가 지나가지 될 새 없이 일손을 옮기는 정력을 과 할 수 밖에 없다. (致)

季刊 速記界

<第8號>

1971年 12月 31日 發行 非賣品

發行人 崔 致 煥

編輯人 梁 源 龍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서울特別市 中區 太平路 1街 60-1

(75) 6987 • 6940